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도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30일)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정치행보 · 무분별 논란 제기
"불교위상 추락 악순환 반복"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수년간 불교계 위상 실추 요인으로 지적된 각종 문제들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교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정체성이 모호한 불교종단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후보 지지 등 정치행위가 두드러진 가운데, 윤석열 대선후보 무속 논란으로 재조명된 유사불교 문제, 불교계 내부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보도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결과적으로 불교 위상을 추락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종단 · 단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각 분야별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 관련 종단 및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성명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지지선언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율종 소속 종도와 신도 2만 5000명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한불교조계율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도 아닐 뿐더러, 온라인 서도 최근의 지지선언 외에는 정보가 전무해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부산 재가불자 3000명' '부산 불교도 1080인 상생모임' '불교계 20여 종단 대승보살 1080명'도 특정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가 불교계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불교' '불자'라는 명칭으로 이뤄지는 등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빈축을 산다. 게다가 특정 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으로 모인 이들의 정치 행보라는 점에서 정교분리 논란과 함께 불편한 시각이 적지 않다.

선거판 네거티브 중심 '유사불교'

한국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과 무관하지만 유사한 명칭을 가진 유사조계종, 또는 유사불교 문제도 최근 불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이 네거티브전으로 확산되면서 그 중심에 선 '건진법사'가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소속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광조계종이 한국불교종정협의회와 함께 2018년경 '수륙대재'라는 불교의례 명칭으로 살아있는 소를 제물로 사용하는 등 잔혹 행위로 사회적 뭇매를 맞으면서, 불교를 향한 인식왜곡을 우려하는 시각도 불거져 나온다. 한국불교종정협의회 역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무관한 별개 조직이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불자들에게는 불교 단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는 2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력

대선 국면 이어지는 지지선언
상당수 실체 모호 종단 · 단체
선거판 등장 유사조계종 물의
'무속'임에도 스님 · 법사 거론

상왕 · 바지종정 등 비하 · 왜곡
일반 언론서는 가십으로 '화제'
안거 후 前총무원장 사진 공개
'장발' 이유로 종법 위반 고발도
불교 정서 역행 비판여론 거세

뒤에서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유사불교집단, 사이비 종교집단들을 지혜의 눈으로 감시해 이들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의혹제기 · 보도행태

전국승려대회 전후로 크게 증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왜곡 또한 불교위상을 흔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스님들을 '정치승' '권승'으로 비하하는 것을 넘어,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예하를 '바지'로,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실세' '상왕'으로 지칭하는 모습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주장들을 공중파 등 일반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해 기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前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고발된 사안이 일간지 등 언론에 흥미성 기사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발', 즉 삭발을 하지 않았기에 승려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고발 건과 관련 불교계 내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다. 특히 고발자인 허정 · 도정 스님이 고발 근거로 자승 스님이 3개월간 무문관 정진을 한 직후의 사진을 공개해, "안거 직후 수행자의 사진을 '장발'이라고 공개한 것 자체가 사실상의 조롱이며 도를 넘은 행위"라는 시각이 많다. 안거기간 혹은 토굴에서의 용맹정진 중에는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 삭발하지 않고 승복 또한 갖춰 입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계종 승려법 제49조 2호에 따르면 '속복 ·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승 스님의 경우 안거해제 직후 사진 외에는 장발모습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항시 승복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허정 · 도정 스님의 주장이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 언론에 '조계종 실세, 장발(長髮)로 고발'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당사자 명예훼손 및 불교계 위상 실추 등 추가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前 종무관은 "근래 선거판 등에서 불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불교계 내부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야기되는 각종 논란이나 문제들이 외부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행태에 대한 현실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느 종교든 내부적으로 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전략적인 행보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가십거리로 확대 · 재생산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불교위상을 흔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요인으로 축적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봄이 오고 있다 남녘으로부터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온 통도사 자장매가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사진은 2월 23일 모습) 올해는 예년에 비해 약 한 달여 늦은 개화다. 하지만 늦어서 더 반가운 것일까. 하나 둘 피어나는 꽃잎들이 지나는 대중의 발길을 돌려세운다. 봄이 오고 있다. 통도사 자장매는 통도사 대중이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영각 앞에 심은 매화나무이다. 율사의 호를 따서 '자장매'라고 했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 함께 견인"

생명나눔 · 本紙 21일 업무협약
'생명나눔 희망선물' 공동 기획



2월 21일 제휴협약 체결직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 오른쪽)과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현대불교신문(대표 김재진)이 2월 21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양 기관의 업무교류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님은 "장기기증 서약과 같은 공익활동은 홍보가 중요하다"며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성과를 홍보하고 후원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단체로, 스님과 불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준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펼치는 아름다운 활동을 적극 보도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생명나눔을 위한 기부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현대불교신문 임직원이 동참한 장기기증 서약서를 생명나눔측에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기증 서약이 많이 줄어든 만큼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현대불교신문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활동과 주요 행사를 심도 있게 보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연등회 율동 보급을 위한 '2022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공모접수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며 유튜브에 올라온 '2022 연등회 율동영상'을 따라서 연습 후 촬영 · 편집해 신청서와 함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사 령

명) 편집국 취재부 부장대우
송 지 희 기자 이상 1명
2022년 3월 1일 부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한마음연구』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한마음연구』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2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2. 3. 19.(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 좌장 : 안성두(서울대)
□ 제1주제 (『범망경』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발표 :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논평 : 1. 이자랑(동국대) 2. 고승학(금강대)
□ 제2주제 (대행선의 사상적 체계와 그 의의)
발표 : 김재권(능인대학원대학)
논평 : 1. 이상호(서강대) 2. 이석환(동국대)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올해 봉축엔 탁 트인 조계사 만날까

2월 21일 기자간담회서 사업계획 발표

일주문 가렸던 '동양금박' 매입
최대 난제 해결로 가시적 성과

건물 철거 후 기와담 조성 추진
목불좌상 국가문화재 지정 예고
자비나눔·온오프 신행 확대 기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추진해 온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총본산 성역화 사업' 이 올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난제로 손꼽혔던 일주문 앞 동양금박 매입이 지난해 말 성사된데 따른 것이다.

조계사는 2월 21일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그간 성과가 가시화되는 해로 조계사 안팎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주지 지현 스님에 따르면 조계사는 2015년 '상아불교사' 2016년 '을유문화사' 2020년 '상아빌딩' 과 '은성식당' 을 매입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경 '동양금박빌딩'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동양금박빌딩은 조계사 일주문을 정면 기준 반 이상 가리고 있는 건물이어서 총본산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할 건물로 손꼽혔다. 때문에 전임 주지 스님들도 수차례 매입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동양금박빌딩 매입까지 40년이 걸렸다고 정도로 조계사의 오랜 숙원이자, 성역화 과제의 최대 난제였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축적돼 온 총본산 사업의 성과들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동양금박 빌딩의 명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철거해 일주문을 가리고 있던 구조물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부처님오신날, 늦어도 백중 이전까지 명도를 완료하고 철거를 단행, 총본산 성역화를 가시화하는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현 스님은 "건물 철거 이후에는 별도의 구조물 건립이나 증축 없이 탁트인 일주문 전경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와담 형태로 인근과 이어지는 모습으로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계사가 훨씬 안정돼 보이고 아늑해 보일 것이라는 기대로 문화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이하 목불좌상)의 문화재 지정도 예정돼 조계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계사 목불좌상은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과 미술사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조선전기 왕실지원으로 조성된 도갑사 불상군 중 하나란 학설이 제기된 후, X-ray 촬영 등 조사연구를 거쳐 국가문화재 보물승격이 추진됐다. 그 결과 올 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문화재지정예고 공시기간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보도 더욱 확대된다. 동시에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발맞춘 온오프 포교신행 프로그램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통한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조계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을 수탁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지원, 나눔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을 중심으로 한 집수리 봉사, 난방용품 지원 등은 예산을 확대하는 등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온오프 포교신행 프로그램은 그간 다양한 시도들을 정착하는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유튜브 법회 생중계와 SNS 소식 안내, 온라인 불교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부터 기획한 '총총조계사' '우리절 노래꽃이 피었습니다' '법문 카드뉴스' 등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삼년째 이어진 코로나 펜데믹 상황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계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보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 포교신행의 새 바람을 이끄는 한편,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더디지만 꾸준하게 성역화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해사 신임주지 덕조 스님 임명

원행 스님, 2월 23일 "화합교구 운영" 당부


은해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덕조 스님(오른쪽)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신임주지 덕조 스님이 "화합으로 교구 발전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3일 덕조 스님에게 은해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덕조 스님은 2월 17일 은해사 차기주지 후보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차기주지로 선출됐다.

원행 스님은 "종단과 교구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내줘서 고맙다"며 "산내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교구본사 대중 모두가 잘 어울려 화합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덕조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장 소임을 맡았던 2년 간 원장스님으로부터 배운 바를 교구운영에 잘 적용하겠다"며 "종단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해사 신임주지 덕조 스님은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7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하양포교당 · 영천 진불암 · 경산 불굴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포교국장과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승가교육기구 신규 구성 잇달아

신임 교육위원장 금강 스님
염불교육위원장 화암 스님
교육아사리 신규 · 재위촉도

종단 교육 기본계획을 연구 · 수립하는 교육위원회의 신임위원장으로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선출됐다. 이 밖에도 염불교육지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며, 교육아사리 신규 · 재위촉도 이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4기 교육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제14기 교육위원회는 금강 스님, 덕문 스님, 등현 스님, 정덕 스님, 인해 스님, 연각 스님, 진각 스님, 운산 스님, 김종욱 동국대 교수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금강 스님이 호선됐다.

교육위원회는 종단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 · 수립하는 교육원 산하의 위원회로 교육에 관한 종법 · 종령의 제정 또는 개폐안 등을 기획한다. 교육위원장은 교육원 최고의결기구인 교육원회의에 참석해 교육원의 각종 현안들을 심의 의결한다.

제3기 염불교육지도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2일에는 위촉식을 열고 5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된 제3기 염불교육지도위원은 화암 스님(어산종장), 인묵 스님(어산어장), 법안 스님(어산종장), 정오 스님(어산종장), 현준 스님(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교수)으로,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에는 화암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승가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교육아사리로 16명이 신규 · 재위촉 됐다. 신규 위촉된 교육아사리는 7명으로 '대승불교' 분야에 승범 · 동명 · 석도(니) 스님, '선불교' 분야에 휴담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 지월 · 자운 · 홍경(니)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3년 임기 만료된 교육아사리에 대한 심사를 통해 9명이 위촉됐다. 재위촉된 교육아사리는 '대승불교' 분야에 도업(니) 스님, '선불교' 분야에 지은(니) 스님, '계율' 분야에 보운 · 법장 · 유정(니)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는 범우(니) · 태경(니) 스님, '불교사' 분야에 문광 · 정완(니) 스님이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 아사리는 승가교육자이자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연구하는 수행자로 종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위촉되신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사명감을 갖고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된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승가교육 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을 담당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활동할 수 있다. 교육아사리의 임기는 3년이다.

신성민 기자

승가연수, 인문강좌 강화…비대면 · 대면 병행

조계종 교육원, 2022년도 연수교육 계획 발표

승가결사체 인증서 수여식
올해 31개 단체 확대 활동

조계종에서 시행하는 승가연수교육이 시대 변화에 맞게 인문 · 사회형 강좌가 강화되며, 비대면 · 대면 연수가 병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2일 법계과정의 '대덕 · 혜덕 법계과정' 을 시작으로 올해 연수교육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22년도 연수교육은 교육원에 개설 · 진행하는 '강좌형 · 순례형 연수' 와 교육원의 인증을 받아 진행하는 '인증교육 연수',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으로 구성된다. '자원봉사활동'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강좌형 연수는 법계과정(6개), 사찰경영과정(3개), 선교율과정(4개)을 기본으로 하며, 시대에 맞는 인문사회과정 13개 강좌가 개설됐다. 주요 인문사회과정 강좌로는 △인도신화와 불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라캉 정신분석이론 △소통의 화법 △조선시대 불교회화 △통합종단 60년사 △영상 콘텐츠 글쓰기 등이다. 한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국내 · 외 순례과정도 국내 2곳(제주불교 탐방, 내포 문화권 불교유적 답사), 하반기 해외 2곳(중국불교의 정수 '돈황 순례', 일본불교의 정수 '시코쿠 순례')을 개설됐다. 다만, 방역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교육 연수' 는 전국에서 48개 과정으로 진행한다. △간화선 △의례 △명상 △사찰음식 △불교영어 △설법스피치 △차블렌딩 △템플스테이 △유물관리 △불교호스피스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연수교육 일환으로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인증교육 연수' 는 연 1회에 한해 연수점수 30점을 인정하고 있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은 올해에는 31개로 확대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인증서 수여식' 을 개최하고 인증서와 지원금을 전달했다. 올해 승가결사체에 대한 교육원의 지원 총액은 1억 2500만원이며, 단체별 보조금 지원은 31개 단체의 활동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회의 등으로 활동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수점수 50점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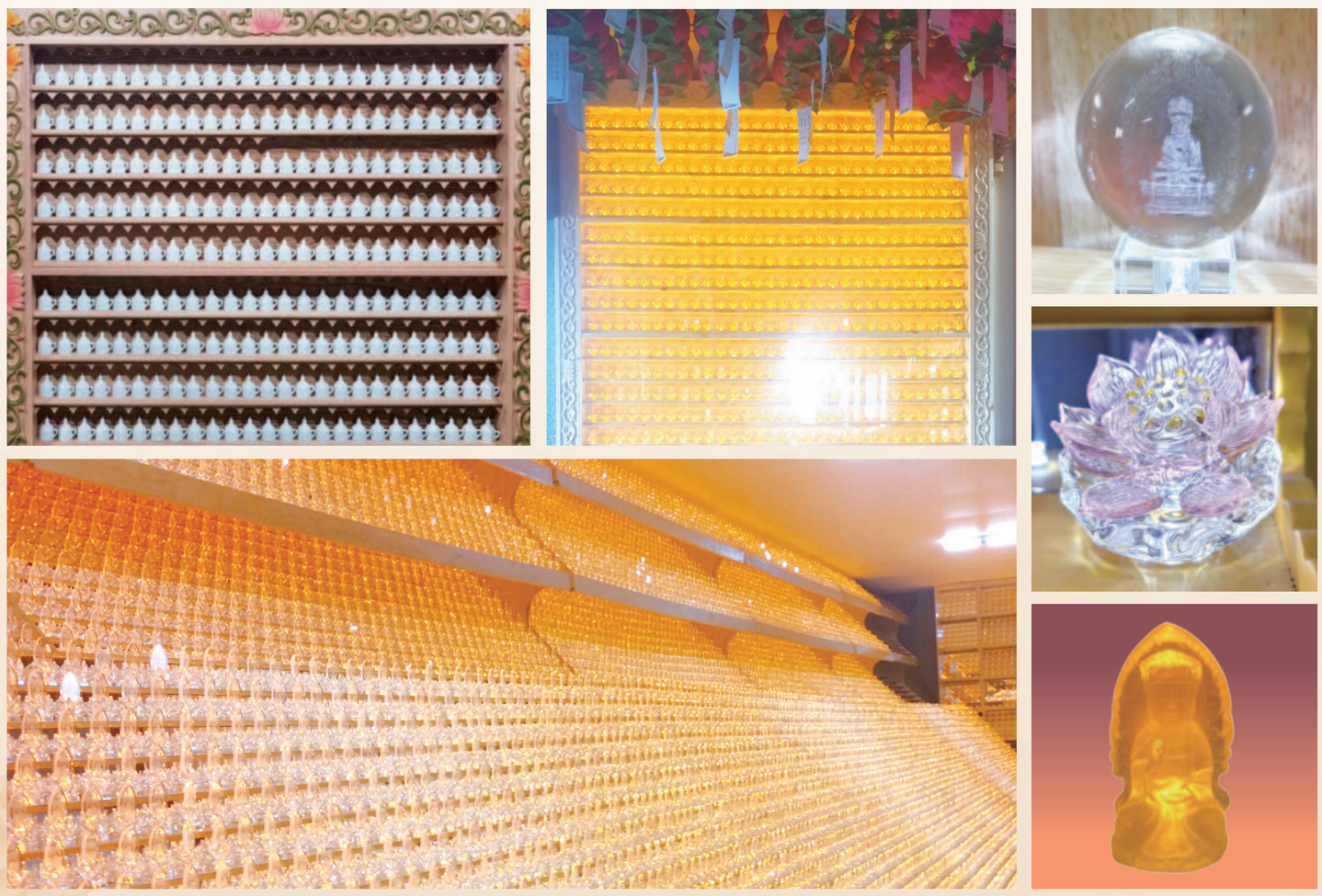
또한 중덕 · 정덕 법계를 받고 1년에서 5년차에 해당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덕 · 정덕 법계과정1' 은 올해도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무엇보다 유동적인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연수와 대면 연수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언제든지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연수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도 연수교육 강좌의 내용 및 일정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담은 〈2022년도 연수교육〉 안내책자를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교육원 연수교육 홈페이지(monkedu.buddhism.or.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불교복지 미래 성장 기반 구축하는 한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22년 사업 계획 발표

2월 22일,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 가속화
온라인 개발로 위드코로나 대응
국제개발 협력사업 강화도 박차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2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종무기조’를 발표하고 “복지서비스 전문화와 미래성장 기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2022년 핵심과제로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화 및 전문화 △재단 운영 시스템 정비 및 불교사회복지 성장동력 개발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자원봉사 실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불교사회복지 전문 인재 양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안정화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 중심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은해사와 고운사, 백양사, 봉선사의 복지법인 설립에 나선다. 해당 본사 복지법인 설립이 완료될 경우, 전체 25곳 교구본사 중 18곳이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운영체계를 기존의 중앙 집중 형태서 교구본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 분산된 복지시설 관리에 따른 중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밀착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그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국 복지시설이 이관 및 분산으로 이어져 지역 간 사회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펴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인 스님은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으로 각 교구본사들이 지역별 사회복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의 사회복지재단이 재단법인 고유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지역교구 복지법인들과 더불어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현재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모금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계발, 비대면 온라인 문화 속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트렌드에 발맞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교계와 사찰, 산하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기업의 참여를 독려, 재단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인 스님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불교계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불교사회복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물리적 ·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국에 위치한 재단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직급 및 직무별 맞춤형 특화 연수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개발 협력사업 네트워크 강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해 차기 MOU체결을 위한 협의 및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 품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다양한 채널의 교육을 실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내 · 외 개발 협력분야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인 스님은 “2022년은 복지서비스 전문화와 미래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인공 관법 수행하니 알파파 즉각 증대”

한마음과학원 의학팀 ‘IJERPH’ 게재 논문서 입증

안거 중 신도 23명 뇌파 측정
수행 시 측두엽서 알파파 증가
안거 참여 많을수록 효과 높아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주창했던 ‘한마음 주인공 관법’ 수행 시 뇌파 중 알파파가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마음과학원 의학팀(김주현 · 김미지 · 장미란 · 이준엽, 이하 과학원 의학팀)은 국제 환경보건 저널인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에 2월 2일 게재한 논문 ‘주인공 관법이 측두두정엽과 전전두엽 뇌파의 세타파 · 알파파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과학원 의학팀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도 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하안거 기간 중 뇌파를 측정했다. 뇌파 측정은 주인공 관법을 측정했을 때와 다른 생각을 했을 때로 나눠 이뤄졌으며, 참가자 설문지에는 선원에 다닌 연도, 수계법회 참석과 안거 참석 여부 등이 조사됐다.

과학원 의학팀에 따르면 뇌파 측정 결과 주인공 관법 수행 시 알파파가 세타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측두두정엽(관자놀이 윗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다. 한마음선원 안거 참석 횟수가 많을수록 이 같은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준엽 한마음과학원 의학팀 연구원은 “집중할 때 나타나는 알파파가 주인공 관법 수행 시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안거 수행을 많이 경험할수록 알파파가 더 많이 증대했다”면서 “주인공 관법 수행을 하면 뇌의 기능적 부분을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는 영역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다른데 측두부는 청각, 기억 등을 담당한다. 왜 주인공 관법이 측두두정엽에서의 알파파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주인공 관법 수행의 효과를 뇌파 측정 연구를 통해 입증해 국제학술 저널에 이를 게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김주현 과학원 의학팀 연구원은 “논문이 게재된 ‘IJERPH’은 인터내셔널 SCI급 저널이자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피인용지수)가 비교적 높은 저널에 속한다”면서 “한마음선원 주인공 관법이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른 수행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연구 분야다. 국제 저널에 연구 논문 게재는 한마음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은 “올해는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로 여러모로 의미가 큰 해이다. 그 시작을 과학원 의학팀이 알렸다”면서 “여러 연구팀들도 분발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마음선원 3층에서 ‘코로나 위기인가 기회인가?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 국제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여성불자회 4월 출범한다

발기인 1080인 모집 공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4월 12일 (가칭)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설립한다. 포교원은 2월 23일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하여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겠다”며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로 먼저 1080인의 발기인을 모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오는 4월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직장 직능, 연령별 계층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현재 포교원은 교구본사를 비롯해 사찰 · 단체 · 학교법인 등을 통해 발기인을 추천받고 있다.

포교원은 취지문을 통해 “기존 포교원이 설립한 여성조직의 경우 몇몇 이사진들의 주도로 활동하며 많은 아쉬움을 낳았다. 여성불자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조계종 사부대중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여성불자들은 3월 18일까지 추천서 및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사찰 주지스님 · 단체장 · 법인이사장 직인 날인 후 포교원 포교팀 이메일(hy@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0-7065)로 제출하면 된다.

포교원은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멀리 벗어나게 하며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셨다. 종단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080 발기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 봉은사 잇는 순례길 개발

포교원, ‘허응당 보우의 길’

순례는 재가신도 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사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찰로 인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 중 2022년 첫 성과물로 조계사와 봉은사를 잇는 ‘허응당 보우의 길’을 개발했다.

포교원에서는 지난해 ‘화엄사, 어머니의 길’과 ‘천은사, 상생의 길’을 발간, 순례길 보급에 나선 바 있다.

순례길이 ‘허응당 보우의 길’로 정해진 것은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 아래에서 선교 양종과 승과를 복원하는 등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보우 스님(1507~1565)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순례길은 조계사를 출발하여 청계천 - 동국대 - 미타사 - 동호대교 - 압구정 - 청담동을 거쳐서 봉은사에 도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순례 팜플렛에는 각각의 장소들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하여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보리가람대학 법인처장에 인석 스님

원행스님, 2월 22일 임명장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에 인석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송광사 벌교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한 인석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석 스님은 2월 28일부터 2년 동안 다르에스살람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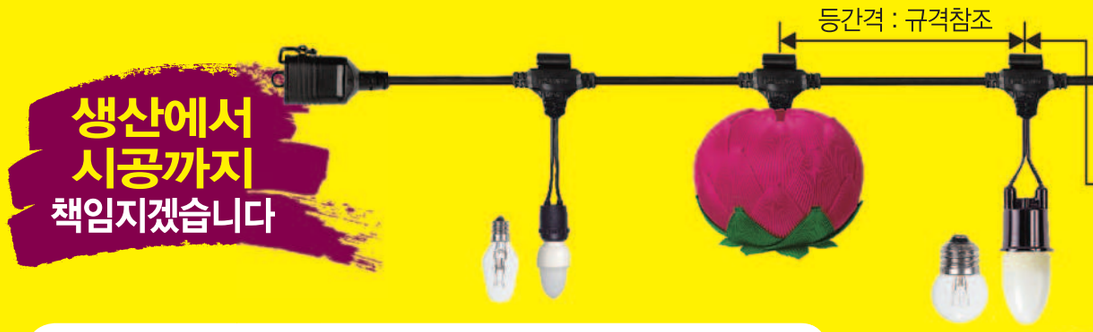
원행 스님은 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불교를 홍포한다는 마음으로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지 기후와 풍토에 잘 섭생해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석 스님은 “소통에 힘쓰며 묵묵히 베풀고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광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인석 스님은 2003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40년 은거 깬 현기 선사 설법, 코로나 잊은 수행열기

전등사 2월 22일 벽암록 전등대법회 현장

2013년 이후 세번째의 법석
백칙공안 담은 벽암록 설해
승속 초월해 한자리서 탁마
"수행힘으로 코로나 극복을"



2월 20일 입재식부터 25일까지 열린 '올바른 간화선의 뿌리를 찾아서—현기 대선사 초청 벽암록 전등 대법회'에서 〈벽암록〉을 강설하고 있는 현기 대선사.



무설전 오른편에 앉은 50여 스님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무설전 왼쪽편에 앉은 재가자 50여 명이 공부하는 모습.

강화 전등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의 향취를 물씬 풍기는 선풍진작의 장이 열렸다. 40년간 은둔수행 해 온 현기(83) 대선사가 7년만에 출문해 천재일우의 법석을 마련한 것이다. 2월 20일 입재식부터 25일까지 열린 '올바른 간화선의 뿌리를 찾아서—현기 대선사 초청 벽암록 전등 대법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법회서는 5박 6일간 120여 수행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탁마했다.

2월 22일 오후 2시 강화 전등사 무설전.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아랑곳 없이 승속을 초월한 120여 수강생들의 향학열로 후끈 달아 올랐다.

선수행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벽암록〉을 펼치고 함께 강독하며 현기 대선사의 해설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법사로 초청된 현기 대선사는 당대의 선지식으로 꼽힌 향곡 스님 문하에서 성철 스님과 함께 정진해왔다. 또한 현기 스님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견성한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40년 가까이 홀로 정진했다. 은거 수행하던 스님은 지금까지 2차례 대중 설법을 했는데, 2013년 서울 조계사와 2016년 대구 동화사서 열린 간화선 대법회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쉽게 친견 못할 기회여서 인지 사전에 일찍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참가 대중은 숙식을 함께하며 매일 오전 8시30분과 오후 2시 두 차례 100여 분씩 진행되는 법문을 듣고 오전 · 오후 정진을 통해 실참실수를 병행했다.

코로나 방역기간임을 감안해 참가자 전원은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들로 제한했으며, 현장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전등사 TV'를 통해서도 생중계했다.

20일 열린 입재식에는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과 주지 여암 스님 등 전등사 대중들과 전국 선원 수좌회 대표 일오 스님, 선문화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 등 수좌 스님들도 참석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일오 스님은 "전등사 벽암록 전등대법회가 간화선 선풍이 진작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행 가풍이 이번 전등법회를 계기로 확산되기를 발원했다. 선문화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도 오랫만에 대중앞에선 현기 스님의 회향 공덕에 감사를 표했다.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전등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찰이란 의미"라며 "전등사서 대중들이 접하기 힘든 현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등대법회는 현기 스님을 법상에 모시고, 입정 이후 송광사 인월암 원순 스님이 벽암록 구절을 읽으면, 현기 스님이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 중간마다 대중이 함께 합송하며 입재와 회향에서는 정근도 진행됐다. 대중들과 함께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10명 남짓한 선원장과 선덕, 한주 스님들도 이번 법회에서 대중과 함께 공부하며 수행을 독려했다.

22일 현기 스님은 〈벽암록〉 2칙 '조주지도무난'에서 '고목용음'에 대해 "용의 읊조림은 어떤 장구인가. 조산이 이르되 어떤 장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듣는자는 모두 죽는다. 다시 송이 있어 이르되 고목에 용이 읊조림에서 참으로 도를 보나니"라며 "촉루에 식이 없어야 눈이 처음으로 밝다. 희와 식이 다한 때에 소식도 다하나니, 당인이 어찌 탁중의 청을 분변하리오 하였다"고 설했다. 문구 하나 하나를 꾹꾹짚어 꼼꼼히 설명하는 노대선사의 열정적인 모습에 많은 대중들은 집중했다. 법회가 진행되는 현장을 중계한 강의실 밖 유튜브 채널에서는 5000여 대중이 모여 현기 스님의 설법을 경청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전서 온 김숙이 보살은 "저 같은 경우는 스님 법문을 운좋게 여러번 들을 기회가 있었기에 간절히 참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처음에는 양보를 망설였지만, 그래도 현장서 직접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겨 빨리 마감전에 신청했다"며 "이번 법회를 계기로 불교 공부에 대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스님께서 핵심을 찔러 주시는 촌철살인 같은 벽암록 강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에 시간상 5칙까지만 설하셨지만, 법회가 끝나고 이어서 더 깊이 공부할 생각"이라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사천에서 온 도념 김대진 거사도 "이번 귀중한 강의가 코로나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 현대인들이 진리와 본분에서 벗어나게 생활하는 세태가 많다. 스님께서는 항상 전도몽상을 여의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강조하신다"며 "그러한 가르침에 맞게 계속 정진해 가겠다"고 비장한 어조로 소감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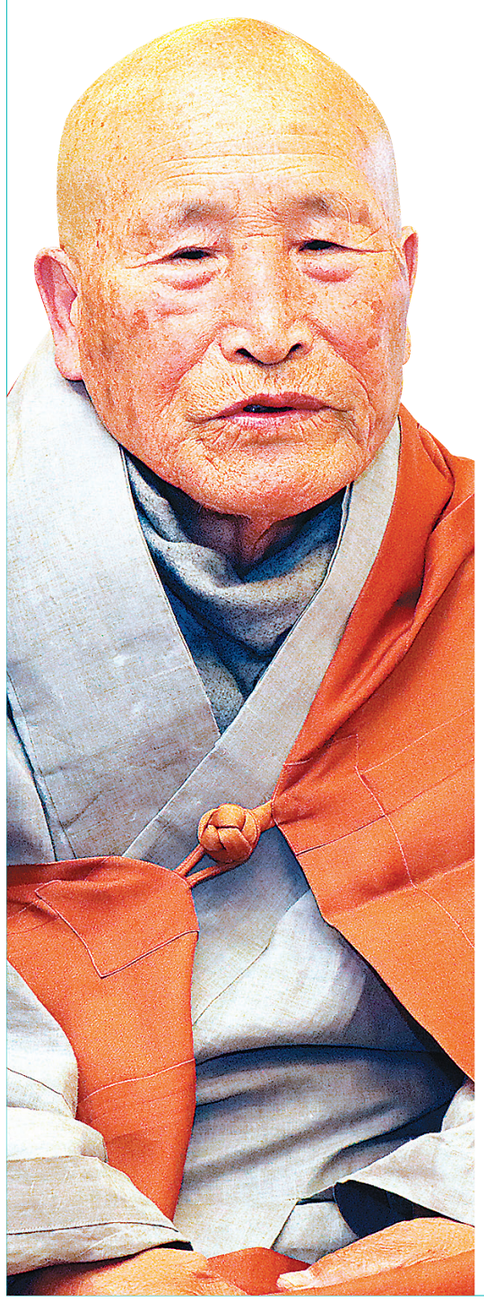
강의에 대한 감동은 스님들에게도 이어졌다. 강화서 참선센터를 운영 중인 혜정 스님은 이번 벽암록대법회가 새로운 대중 수행 문화를 일으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혜정 스님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정진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져 안타깝다"며 "불교의 핵심은 어쨌든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처한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불자들부터 수행의 힘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차분히 정리됐으면 한다. 이번 법회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바람을 전했다. 이번 강설을 함께 진행한 원순 스님은 "십수년간 대중 앞에 나서지 않으셨던 현기 선사께서 벽암록으로 강연하시는 것은 벽암록이 지닌 의미를 세세하게 풀어 대중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서"라며 "간화선 공부에 대한 사부대중의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선풍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 전등사는 이번 현기대선사 벽암록 전등대법회에 이어 간화선 선풍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삼고초려로 현기 대선사를 모셔와 이번 대법회를 총 기획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이번 법문 내용을 수록한 벽암록 해설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민선방 운영도 추진 중에 있다"며 "현기 큰 스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이번 법회와 같은 귀중한 기회를 자주 만들고 싶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현기 대선사에게 묻다

"백칙공안 타파하는 것이 부처님 은혜 갚는 길"



인터뷰=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내달리는 마음을 잘라버리는 게 화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화두를 철저히 참구하려면 간절하라고 예전 법회서 설하신 기억이 나는데 대중들이 화두 참구를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을 자르는 게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이 자연임을 깨달으면 허상은 사라집니다. 상은 허상이니까 간절히 깨닫고 눈을 뜨면 허상은 자연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6년 만에 또 대중 법석에 나오셨는데요. 벽암록을 교재로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타파해야 할 선종의 백칙공안이 벽암록에 모두 있습니다. 그것들을 타파 하는 것만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절집안에 와서 시주 밥 얻어 먹고 밥값도 갚고 부처님 은혜도 갚아야 하는게 수행자의 본분이지요. 농부가 농사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벽암록은 한 구절 한 구절 참구하는데 그 맛이 있습니다.

△벽암록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선수행서인데, 우리나라는 난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문염송〉이 오히려 대중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벽암록을 읽어야 할까요.

=적을 물리치고 전쟁서 이기려면 먼저 적장부터 제압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읽고 또 읽으며 사유한다면 올바른 이해의 눈이 떠집니다. 벽암록이야 말로 정말 내가 넘어야 할 문턱이고 걸린 병을 치료하는 약이요, 깨달음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면, 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5일 동안 강설 하시기에 벽암록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분까지 강설하시는 지요.

=5일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벽암록의 백칙공안 중 백분지 오라고 할 수 있는 5칙 공안만을 이번에 강의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벽암록 공부의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벽암록〉은 내가 넘어서야할 문턱
> 믿는 것이 바로 도의 근본 원리다
> 매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행복'

△온갖 세파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사실은 도심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야에 묻혀 수도하시는 큰스님과 같은 분들을 만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스님들처럼 수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대중이 모여서 벽암록을 놓고 부족하지만 스님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함께 정진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고령이시지만 요새도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예불하시고 손수 식사도 만드시며 수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행복과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매일 매일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고 행복한 일입니다. 반복이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십시오.

△부처님하고 저희가 시공을 초월해 교감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깥 경계를 끊어버리면 시공의 간격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억지 소리입니다. 끊을 것도 초월 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믿으며 실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귀중한 도를 믿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믿으면 세상살이에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도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과 교감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 꿈 속에서 방황을 멈출 수가 있는데 저희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요.(웃음)

△스님께서 2013년 조계사 법회서 지금 바로 이때 무엇인가를 하라고 강조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지금 자체가 소중한 시간인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현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놓친다는 것입니까. 바로 불법입니다. 부처님 법속에 살면 현대인들은 놓치고 말고 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새 코로나라는 난적을 만나서 일상서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튼튼하는 몸과 마음의 면역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약해져서 생기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싸워서 없어진 면역력을 되찾아야죠. 면역력이 대중들 사이에서 다 갖춰지면 코로나는 사라집니다. 코로나가 자기 먹을 게 없는데 배가 고파서 뭐 어디 붙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법석이 자주 마련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대중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스님을 좀 더 법석에서 뵐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까요.

=기회는 본인이 만들어야지요. 본인이 부처님 법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기회가 만들어 집니다. 그것이 인연법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플 때 밥먹어야 되고, 목 마르면은 목마를때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인연법을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장시간 강의하시고 힘드실텐데 인터뷰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와 인터뷰 한거 녹음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스님 말씀하신 육성 그대로 지면에 옮길 예정입니다.

=아이쿠 나는 죽었네. 죽었어. 내가 죽은 소리를 했는데 죽어 당연하지.

Interview

“복지관장 20년…재출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특별인터뷰 복지관장 20년 퇴임한 **화평 스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은사 월주 스님 ‘깨달음의 사회화’ 큰 감명…불교사회복지 헌신 다짐

중생구제 원력으로 20년간 즐거워

전문성 둔 노인 상담 개척 큰 성과

장기근속 직원들 덕분에 무해무탈

복지부장관 표창 등 다양한 수상도

전주 서고사 주지…명상센터 불사

‘백지’ 상태지만 “새로운 판 설레”

지역사회 불교 홍포 혼신 다할 것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사미계)했다. 무우사, 심곡사 주지 및 제16, 17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신도종책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종립학교관리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당시인 2003년부터 2022년 2월까지 20년간 관장직을 수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이 20년간의 관장 소임을 내려놓고 산중으로 돌아간다. 2003년 5월, 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관장으로 취임해 불철주야 달려온 화평 스님은 2월 24일 이취임식을 앞두고 마련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하나의 수행과정이었다”고 지난 20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이후 꾸준히 어르신 교육과 문화생활 지원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노인복지 지평 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르신뿐 아니라 세대통합에도 중점을 둬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했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는 등 다변화 사회에 맞춰 복합적인 복지를 펼쳐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복지관 일일 최대 이용자가 2000여 명, 일주일 동안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90여 개에 달했다. 개관 당시 21명으로 시작한 직원은 현재 계약직까지 포함 79명이다. 자원봉사자만 1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내·외형이 몰라보게 성장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역사에는 관장 화평 스님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제 전주 서고사 주지로서 새로운 소임을 시작할 화평 스님은 “산중으로 돌아가 또 다른 보살행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불교홍포를 위해 혼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Q.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지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정든 곳을 떠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A. 수행자로서 이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관장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은사 스님(월주 대종사)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중생구제를 원력으로 삼아 관장 소임을 맡아온 것이 벌써 20년입니다. 시설 규모뿐 아니라 예산과 직원, 이용객, 각종 프로그램까지 내·외형이 몇 배 더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로비에 놓인 나무 장식까지 손길 하나하나 닿지 않는 부분이 없기에 더욱 애틋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떠나게 돼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Q. 전국 여느 복지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A. 현장은 물에 떠있는 오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위는 잔잔하지만 발을 숨 가쁘게 움직여야 떠있을 수 있죠.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중지되면서 자원봉사자의 출입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복지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온라인 활동 준비를 빨리 한 편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온라인 회의와 교육을 위한 장소를 준비했고 녹음실과 송출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초창기 설비를 잘 했기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복지관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45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새로 오실 관장님과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이니 걱정은 없습니다.

Q. 20년 간 관장을 역임하면서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 싶은 것이 있을까요?

A. 노인 전문상담 분야를 개척한 것입니다. 노인 상담을 시작한 것은 서울시에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에서도 앞서나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노년의 우울, 자살, 학대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다양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가가 있기에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가 빠르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덕분에 노인복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부터 조계종총무원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수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Q.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노인복지에 원력을 두셨나요?

A. 사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출가 전 전신마비 등으로 몸이 많이 아팠고, 그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막연하게 “더불어 사는 게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어렴풋이 복지에 뜻을 두게 됐습니다. 금산사에서 어린이법회나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맡게 됐고 이후 전주불교회관에서 어르신 무료급식과 노인 일자리센터를 담당하게 되면서 복지 전반을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 따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오게 됐고 그게 벌써 20년입니다.

Q. 화평 스님하면 은사인 월주 스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장 소임을 맡게 됐을 때 월주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A. 큰스님께서 개관 후 일주일쯤 됐을 때 처음 복지관에 들르셨습니다. 이후 1년간을 매주 복지관에 들러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년간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1년간은 분기에 한 번씩 오셔서 장부 검사까지 꼼꼼히 하셨죠. 5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큰스님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마음껏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20년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큰스님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Q. 월주 스님 원적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큰스님은 작은 거인 같았다”고 회상하며 울먹이시던 스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월주 스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A. 큰스님은 자신에게는 엄하면서도 주변 분들,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항상 챙겼고 복지현장이 하나의 수행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계실 적, 사서실 소임을 보며 지근거리에서 큰스님을 모시게 되면서 사회활동에 눈을 떴습니다. 당시 큰스님께서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셨을 때 그 명칭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출가자가 되면서 수행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지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을 때입니다. ‘깨달음의 사회화’에 감명해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불교사회복지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죠. 월주 스님을 모시면서 복지에 대한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금산사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스님도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Q. 인터뷰 전 만난 한 직원이 스님에 대해 ‘직원을 먼저 생각해 주는 관장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간 관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직원이 있을까요?

A. 초창기 일을 같이 시작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복지관장뿐 아니라 부장 등 책임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로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했다는 이유 하나로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나누며 탁마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광진에는 장기근속자 역시 타 기관에 비해 많습니다. 초창기 멤버 몇몇이 여전히 책임관리자로 근무 중이며 차기 관장도 광진에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20년간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무해무탈하게 올 수 있게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Q. 복지관과 같이 사찰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전주 서고사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A.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 공간을 만들어 지역 모임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한 책이 2000여 권인데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와 책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구상 중입니다. 이미 조성돼 있는 등산로와도 연계해 시민들의 휴식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채워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기대합니다. 세계평화명상센터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봄에 완공하면, 바로 예비템플스테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앞으로 쉼 없이 달려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Q. 20년 전 광진노인복종합복지관 개관 때처럼 이제 또 다른 개관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A. 처음 금산사에서 행자 면접을 보는데 도법 스님께서 “왜 출가를 하려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생무상이니 뭐니 그런 것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몸이 건강하면 부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인지 가는 곳마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출가할 때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일을 즐기게 됩니다. 몸이 힘들 때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출가했지…”라고 생각하면 잊고 빨리 내려놓게 됩니다. 복지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고사는 하얀 도화지 상태입니다. 이 도화지에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겠지요. 큰스님께서 저를 믿고 서고사와 세계평화명상센터 불사를 맡기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A. 20년간 복지관에서의 생활은 마치 직장인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쉼 없이 복지관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제는 수행자로 돌아갑니다. 재출가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행자 때로 돌아가 새벽예불과 사시불공, 저녁예불까지 혼자 해보려 합니다. 대중스님도, 공양주 보살님도 한 분 계시지 않은 곳에 홀로 시작합니다. 운영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판을 짠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합니다. 변화되는 서고사와 세계평화명상센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 20년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하나의 수행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산중으로 돌아가 또 다른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열린 광진노인복지관 개관식 모습.


화평 스님은 자주 재가 어르신을 방문해 김치 등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20년 동안 복지부장관 표창 등 다양한 수상을 했다.


만수무강 칠·팔순 잔치는 복지관 대표 프로그램이다.

원오사, 도심 속 힐링 사찰로 중창

2월 23일, 명상문화센터 기공식

지하1층 · 지상4층, 연말 완공
명상 · 다목적실 · 솔밭쉼터 등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설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가 지역민을 위한 명상과 쉼의 공간을 마련하고 도심 속 힐링 사찰로 거듭난다. 원오사는 2월 23일 경내에서 '명상문화센터(가칭) 중창불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은 기념 법회 후 인사말 및 기념촬영, 시삽식으로 마무리됐으며 통도사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 양산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 울산 해남자 주지 혜원 스님 등 통도사 극락문도회 소속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에서 통도사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은 "원오사가 중창불사로 새롭게 도약한다"며 "원오사는 불자 여러분들의 도량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힐링의 장소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참여한 대중에게 절을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인사말을 통해 감회를 전했다. 정관 스님은 "2012년 중창불사의 원을 세웠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중창불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신도님들의 마음이 모여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오사는 통도사 극락암 분원이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도심에 위치한 사찰이다. 2006년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 명정스님의 도심 포교 원력으로 탄생해 지역민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다. 창건 이후 말기암 환자 지원, 지역민 주거환경 개선, 쌀 나눔,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나눔을 이어왔다. 특히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명정지역아동센터'를 열어 공부방을 운영했다. 명정지역아동센터 꿈나무 공부방은 부산지역 200여 개의 공부방 가운데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학습 뿐아니라 문화교실, 다도수업 등 다채로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중창불사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개선을 계획하며 이뤄졌다.


원오사는 2월 23일 경내에서 '명상문화센터(가칭) 중창불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원오사 명상문화센터(가칭) 조감도.

주지 정관 스님은 "처음에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공부방을 제공하고 싶다는 원력으로 시작을 했다"며 "원오사는 지형 특성상 가파른 길을 올라야만 대웅전 법당에 도착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을 때 힘겨워 보이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도량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원오사 경내에 솔바람 명상길이 있다. 녹차밭을 가꾸고 쉼터로 조성해 지역민과 불자들 누구나 방문하고 편안히 걸으며 명상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지역의 힐링 사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오사 명상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지하1층은 주차장이며 1층은 공양간, 2층은 요사채 및 주지스님 접견실, 3층은 명상실과 다목적실, 4층은 종무소와 솔밭쉼터가 조성된다. 각 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4층은 뒤편 대웅전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법당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 1층은 264㎡(80평)이며 1층부터 4층까지는 각 198㎡(60평)으로 연면적 1056㎡(320평) 규모이다. 명상문화센터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문수복지재단, 어린이 마스크 전달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2월 16일 부산 남구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용 마스크 2만1500장을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 남구지회에 전달했다.

마스크는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 남구지회에 속한 어린이집 9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 이춘성 문수복지재단 이사, 우창원 큰빛어린이집(법인분과 남구지회장), 권성희 경성어린이집 원장(법인분과 남구지회 총무), 주미정 용호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전달했으며 남구 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광명사, 원아 및 가족수계법회 봉행

2월 19일, 원아 · 가족 123명 수계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2월 19일 경내 3층 지관전에서 '제1회 광명유치원 원아 및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명유치원 원아와 가족 그리고 교사 등 총 123명이 수계했으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불명을 받고 계를 수지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수계의식 전계대화상은 춘광 스님, 갈마아사리 설혜 스님(부산 해영사 주지), 교수아사리 탄성 스님(양산 양성사 주지)이 존증사(尊證師)로 수계를 증명했으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올리는 육법공양과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개도(開導)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이 참회진언으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연비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삼보륜 도장을 팔에 찍는 것으로 연비를 대신했으며, 전계대화상 춘광 스님이 5계를 내리며 불자로서 자비와 청정을 지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2월 19일 '제1회 광명유치원 원아 및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문 후 춘광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불명을 직접 부르며 수계증을 전달했으며 모든 수계 가족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정진과 공덕의 삶으로 진실한 마음을 지니고 생활해 그 공덕을 회향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오늘 수계법회에 참석한 여러분은 다겁생의 지중한 인연이 있었기에 계를 받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가능했다. 계를 받는 것은 최고의 장엄이자 아름다운 상승법(相承法)이다"며 "계를 받아 지킴으로 해탈을 얻고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 계를 지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라"고 축원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가족들은 "새롭게 불명을 받은 감회가 새롭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선희 씨는 "보문심(普門心)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아들과 함께 계를 받아 느낌이 남다르고 수계의식이 장엄하고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의미가 더욱 깊이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우현 어린이는 "불명 청성(淸性)이란 의미에 어울리도록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광명사 광명유치원은 1983년 개원했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상월원각대조사의 불교 이념을 근본으로 바른 인성을 가진 유아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야심경 독경 및 어린이 법회,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들차차(茶)시연 등을 통해 유아들의 생활 속에 불교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금정산에 인접해 자연친화활동으로 건강을 돕고 있다. 현재 10개 반 260명의 원아와 20명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 대성암, 불교대학 입학식 개최


통영 대성암이 2월 17일 경내 법당에서 제2기 대성암 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이 2월 17일 경내 법당에서 제2기 대성암 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한글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발원문, 인사말,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쌍계사본말사연합회 회장 이암 스님, 나누우리 상임이사 통영 보현사 묵원 스님, 사천왕사 능륜 스님, 청련암 원명 스님과 신입생 15명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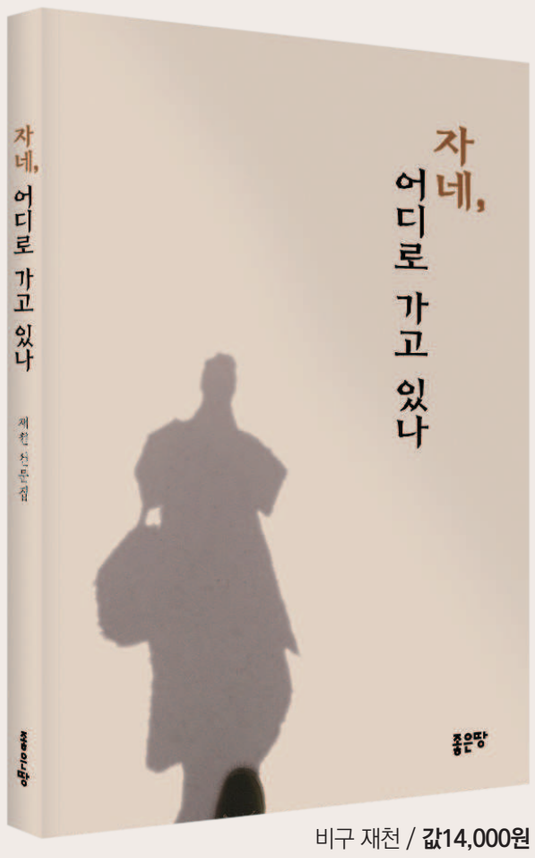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은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해서 아주 기쁜 마음이다. 통영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한다"며 "정법을 통해 행복하고 더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쌍계사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갖춰야 한다"며 "몸과 마음을 현재 생활에 집중하여 살피고 마음공부에 정진하면 행복을 성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성암 불교대학 강의는 사천왕사 능륜 스님이 불교입문, 청련암 원명 스님이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할 예정이며,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특강도 마련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교보문고, yes24, 네이버 쇼핑 등에 제목을 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구 재천 / 값14,000원

자네, 어디로 가고 있나

딸꾹질이 자기도 모르게 멈추듯,
일체중생이 하루빨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하기를 발원하며...

이 책은 「금강경」과 편지글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중, 주위 사람들이 저자의 글을 보고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고 하여 정리하여 엮은 글이다.

글의 시작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입방하였던 때이다. 입방 후 동안거를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어느 스님의 「금강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 경을 보고 더욱 맛나게 기획, 편집하며 평생 공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경전이나 불교 관련 서적을 인용하였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 시의 형식을 빌린 곳도 있고 길게 풀어서 쓴 곳도 있다. 어려운 한자나 생소한 단어들에는 저자의 해석을 추가해 놓았다. 중간중간 사진을 함께 실어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과 인연 닿은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다고 한다.



◈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사찰서점 판매중 ◈ 1권도 전화주문 가능 : 붓다북(구 운주사) 02-3672-7183 / 법우당 031-945-4535 좋은땅

진주·사천·통영 등 7개 시군 조계종 연합체 출범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 2월 23일 법회 봉행

31개 사찰 모여 연합회 형성
남북내륙철도 생활권도 대비
현응 스님 "해인사도 지원"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남부지역 조계종 사찰의 연합체가 탄생했다. 해인사 말사인 진주 의곡사(주지 법연)는 2월 23일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등 7개 시·군 지역 소재 사찰을 모은 조계종 경남남부사찰연합회 출범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출범 법회는 본사인 해인사를 포함해 지역사찰 스님들과 지역 기관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통영 두타사 자용 스님), 연합회장 법연 스님 인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치사, 조규일 진주시장 축사, 국회의원 축사, 공지사항, 사홍서원, 기념촬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 출범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원로 선용 스님 , 다주 여연 스님,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해인사 스님들과 연합회 회장 법연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주지 스님, 조규일 진주시장,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정호 강민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 남부지역 사찰 스님들이 활발한 연합회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는 해인사 말사 31개 사찰이 참여해 사찰간 소통과 친목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불교 전통문화 선양에 나선다.

법회에 앞서 진주 의곡사 대웅전에서는 사전모임이 열려 임원진 구성과 정관 논의가 진행됐다. 회장은 법연 스님으로, 권역별 총무는 혜찬, 재경, 자용 스님이, 총무간사는 성윤 스님, 재무간사는 재정 스님, 사회문화간사는 원호 스님이 맡는다.

법연 스님은 "추대로 회장소임을 하게 되어 책임감이 크다"며 "수행력과 원만한 복덕을 가지신 스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줘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포교와 원력으로 정진하는 회원 스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연합회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역정서에 맞게 사찰들의 의견을 종합해 연합회 활동을 펼치겠다.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회가 되도록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치사로 "진주시를 중심으로 7개 지역은 향후 긴밀한 소통으로 불법 홍포의 중심권역이 될 것"이라며 "이들 지역 소재 사찰의 연합회 출범에 조계종 사찰과 전국불자들의 관심이 크다. 본사 해인사에서도 지원과 많은 성원으로 발전을 이끌겠다"고 격려했다.

현응 스님은 이어 "진주는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의 혁신도시다. 남쪽으로 사천, 고성의 인접시군과 함께 남부내륙철도의 광역 역세권이 될 것"이라며 "동쪽으로는 함양, 함안, 의령의 가야문화권과 생활권이 연결될 것이다. 공정과 평화가 가득한 풍요로운 불국토를 만들어 달라"고 발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남부사찰연합회가 지역포교를 통해 지역발전과 불교전통문화 선양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식 봉행

19일 전주 화엄불교대학 33기 졸업
20일 전북·수현불교대학 행사 진행
코로나 속 학사 일정 진행해 졸업식


전북불교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개교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졸업식을 봉행했다.

전주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금산사 주지)은 2월 19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33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졸업생들과 최소한의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봉행됐다.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학장 일원 스님을 비롯해 흥복사 주지 공해 스님, 정수사 주지 효진 스님, 보현사 총무 우림 스님, 금산사 재무 여찬 스님 등 지도교수들과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안준아 회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김용수 단장, 금산사신도회 하유호 부회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학장 일원 스님은 졸업식사에서 "화엄불교대학의 전 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졸업하는 33기 졸업생 여러분은 여래의 전도사"라며 "앞으로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처님을 대신하여 이웃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학사운영에 공로가 큰 이지남 학생회장이 포교원장상을, 허덕례, 양옥순 불자가 학장상을 수상했으며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도 2월 20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제34회 불교학과 및 제29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34기 34명, 법사과 29기 14명이 졸업했으며 전법사 고시를 통과한 최양열 학인 등 6명도 전법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사를 통해 "불교에서 졸업은 업(業)을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며 "몸과 마음으로 지은 업을 소멸하는 참다운 졸업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학장은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낮춘다"며 "공부를 마쳤다는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졸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노영숙, 법사과 이미숙·최홍숙 학인 등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금산사가 전주혁신도시에 개원한 수현사 불교대학도 20일 4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날 졸업식에는 학장 일원 스님과 지도교수, 운영진,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학장 일원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석가여래 부처님은 전법선언에서 혼자서 가라, 당당하게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셨다"며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과 이웃과 사회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수현사의 신도로 이끌길 바란다. 부처님 말씀이 주는 감동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도심포교·지역전법 미래 밝혀

빛고을포교원 창건 100일 간담회 개최



광주지역 도심 포교의 원력으로 창건된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2월 1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개원 100일, 지역전법의 가능성 모색' 설명회를 가졌다.

주지 연성 스님은 이날 "지역포교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무엇보다도 광주광산지역 불자들이 기도와 불교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느꼈다. 100일간의 기점으로 그동안 갖추어 온 기반 위에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향후 본격적으로 빛고을불교대학 강좌를 열 계획"이라며 "요가, 민요, 다도 등 문화강좌를 비롯해 명상 등 수행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5일 개강하는 제1기 빛고을불교대학(교학처장 이동배)은 주·야간 각각 25명 정원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천수경, 반야심경 △불교문화답사, 템플스테이 등 교학과 신행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동배 교학처장(정광중 교장)은 "교리와 신행을 겸비한 심도 깊은 교육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화엄사 답사와 체험 등 특색있는 내용을 더해 심화과정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성 스님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도 3월 개강을 진행한다. 요가반(강사 유민아), 민요반(강사 방윤수), 다도반(강사 정옥련) 등 모집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스님은 또 공단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명상과 지역민들의 마을 잔치도 열 생각이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원로의원에 도영 대종사 추천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2월 20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2022년 1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서는 2021년 교구예결산 보고, 승려복지기금 배정심의의 건, 기후변화 대응 결의문 채택, 원로의원 추천의 건, 대종사 추천의 건 등이 논의됐다. 참석 사부대중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생명살림 사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로의원 추천의 건에 대한 토의에서는 금산사 회주 도영 대종사를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대종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도원 스님 등 8명의 스님을 추천하기로 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와 태공문도회를 중심으로 '전북불교백년대계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문도와 교구, 사부대중이 화합하여 전북지역 불교혁신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발심에서 열반까지 보장하는 공동체적 교구운영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의성 고운사, 탄소중립 실천선언



의성 고운사는 2월 22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71차 교구종회를 열고 '제16교구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선언'을 결의했다.

이날 고운사 대중들은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생명살림 사상으로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밖에 조계종 유지재단 소속 복지시설을 고운복지재단 설립 후 이관하고 지역 적합 복지시설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의성 고운사 산하 복지시설 모범직원 표창장 수여 및 우수사찰 시상식도 개최했다. 이날 수여 및 시상식에는 고운사 본말사 스님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영주 비로사(주지 성공), 모선암(주지 원세), 황룡사(주지 정현) 등이 우수사찰로 선정돼 표창장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 또 산하복지시설 모범직원 10여 명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됐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하복지시설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창군4H연합회, 사회복지관에 쌀 기부



고창군4-H연합회는 2월 21일 고창군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에 '사랑의 쌀' 590kg(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 2월 고창군4-H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박나현 회장의 취임을 기념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쌀이다. 전달된 쌀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나현 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청년 농업인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고창 농업을 이끌어가는 영농리더로서 지역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한결같은 나눔 행보에 동행해 주는 고창군4-H연합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4-H연합회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동안 사랑의 쌀을 기부하여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안국사불교대학 1기 졸업식 개최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주지 법본)는 2월 24일 안국사 대웅전에서 불교대학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법본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 통도사 기획국장 혜명 스님, 호법국장 천주 스님. 안국사 신임주지 성오 스님. 정법사 부주지 송정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권경만 의창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에 이어 법본 스님 이임 및 성오 스님 취임도 함께 진행됐다.

법본 스님은 "명실상부한 창원 최고 사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여기 계신 사부대중 신심이 한곳으로 모여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한 법본 스님 모습을 보며 원력을 다시 높여본다. 스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도솔암, 석가모니부처님 점안



밀양 도솔암은 2월 19일 도솔암 대웅전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도솔암 주지 덕산 스님, 심진 스님 등 지역스님과 BTN불교방송합창단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덕산 스님은 "도솔암에 온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불심으로 인해 함께 발전하고 정진하고 있다"며 "법당중창 불사 3년으로 3층에는 법당, 2층에는 명상센터, 1층은 한방병원으로 계획 중이다.

불사 성만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심포교의 중심지 역할을 도솔암이 하게 될 것"이라고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심진 스님은 "노래로 불교를 포교하는 스님으로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 불자들이 밝은 마음으로 봉사, 부처님 제자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제자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구례군가족센터, 지역아동과 장학금 전달



구례군가족센터(센터장 도운)는 2월 24일 구례지역 내 다문화가정 대학 신입생 6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구례 사성암(주지 우석)과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에서 후원했다.

우석 스님은 전달식에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이제 23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역량을 발휘해서 빛나는 대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구례군가족센터는 이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서 주관하고, KB국민카드가 후원하는 '2022학년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에도 선정돼 4명의 아동에게 책가방세트와 학용품세트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泰, 플라스틱 쓰레기 활용 호신불 제작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
나일론 어망 등 활용해 경각심
환경오염 · 불교문화 합일 결과
뒷면엔 '깨달음' 메시지도 담아
수익 전액 자선단체 기부 예정



태국 방콕 외곽의 한 공장에서 비닐봉지, 병뚜껑, 어망등 1kg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호신불.
사진출처=로이터통신

김민재 객원기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호신불이 태국에서 화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2월 14일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호신불을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태국의 두 지역 회사가 플라스틱 병부터 나일론 어망에 이르는 9가지 종류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재료로 호신불을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태국의 디자인 회사 '닷츠 디자인 스튜디오'와 '퀄리 디자인'은 방콕 디자인 위크 전시회에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호신불'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민간환경단체와 미국 해양보전센터 보고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해양에 플라스틱을 5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추정되고 있다.

닷츠 디자인의 대표 크릿 풋핌은 "플라스틱 호신불 아이디어는 전 세계 해양 오염 문제와 태국 불교문화를 연결한 합일점에서 찾아낸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 95% 이상이 불자인 태국에서는 각 사찰이나 고승이 제작한 호신불을 소지하거나 차량, 집안에 봉안하는 풍습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호신불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미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수집품으로도 인기가 많다.

퀄리 디자인의 설립자 틸랏차이 숍파메티쿨랏는 "이번 주 출시된 해양 플라스틱 호신불 뒷면에는 태국어로 '깨달음'이 적혀있다. 이는 불교의 진리를 통한 깨달음과 함께 일상의 소비가 환경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메시지"라고 플라스틱 호신불을 설명했다. 사찰에서 정식으로 스님들의 축복을 받은 호신불은 한 개당 최소 1kg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최소 100바트(한화 약 3700원)로 교환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신불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료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호신불은 뼈, 나무, 금속과 같은 소재로 제작되며 사찰에서 사용한 향의 재나 고승의 가사, 혹은 삭발한 머리칼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의도는 좋으나 버려진 쓰레기로 불상을 만든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새로운 시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플라스틱 호신불 전시회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방문하는 불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시회를 방문한 한 참여자는 "플라스틱 병 1.8kg를 가지고 왔다"며 "이 플라스틱 쓰레기도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며 프로젝트를 응원했다.

美, 불교미술 통한 심리치료 화제

미국 히말라야 예술학교
파우바 미술 · 명상 교육



네팔 전통 불교미술인 파우바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첼시 비치.
사진출처=더 가제트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네팔 전통불교미술 파우바(paudha) 미술과 이를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화제다. 미국 콜로라도주 지역 신문 '더 가제트'는 2월 20일 불교미술인과 현대적인 심리치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시에 소재한 '히말라야 예술학교(Himalayan art school)'는 파우바 미술을 가르치면서, 이를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센터다. 2018년, 네팔에서 전통 방식으로 파우바 미술을 배운 화가 첼시 비치가 설립한 이곳은 불교미술을 통한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첼시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달라이라마가 저술한 사성제 소책자를 접하면서 불교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네팔과 인도로 떠난 첼시는 네팔에서 파우바 미술 거장 록 치트라칼(Lok Chitrakar)에게 3년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불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익혔다.

첼시는 "스승인 치트라칼 선생님이 고향인 스프링스에 파우바 예술학교를 설립하도록 격려했다"며 미국에서의 활동 계기를 전했다. 지금까지 첼시는 1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파우바 미술을 가르쳤고 다양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불화를 심리치료와 접목하게 된 계기에 대해 첼시는 "내게 예술은 명상의 한 형태"라며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더 쉽다. 실제 파우바 불화는 신체의 각 구성요소와 신경경로의 일부를 개방하는 명상용 지도로도 활용된다"고 파우바 예술과 명상이 둘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또 "파우바 미술은 이기적인 자존심이 가득한 서구 미술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파우바 미술은 단순히 불보살을 그려내는 것만이 아닌, 인간의 의식적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각각의 그림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명상의 목적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기에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를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첼시는 "예술을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바로잡고 성장시켜 타인에게도 자비심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코로나 종식 · 세계평화 위한 '까규몬람' 법회

티베트 까규파, 음력 정월부터
온라인 생중계…한국어 번역도
'마리지천' 특별기도 함께 봉행



온라인으로 봉행된 까규몬람.
사진출처=까규몬람 공식 유튜브 캡쳐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종단 중 하나인 까규파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이 소멸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온라인 기도회 '까규몬람'을 봉행했다. 2월 17일, 까규몬람 사무국은 "17대 까르마빠의 인도 하에 8일간의 까규몬람이 무사히 회향됐다"고 전했다.

까규파는 매년 음력 정월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까규파를 이끄는 지도자인 17대 까르마빠를 법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 '까규몬람'을 봉행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생중계를 이용해 '온라인 까규 몬람'을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코로나19의 빠른 소멸을 위해 '마리지천 천공(千供)' 기도를 함께 봉행했다.

온라인 기도회는 2대 까르마빠인 까르마 팍시가 저술한 상사공양(上師供養)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까규몬람에는 전세계 까규파 사원들과 신도들이 모두 참여했다. 사원들의 경우 이번 온라인 기도회와 함께 각 사원별로도 기도회를 봉행해 기도의 힘을 더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고 한국어 통역을 포함해 10개 국어 이상의 통역도 함께했다.

2월 16일 상사공양 기도를 회향하며 기도를 이끈 까르마빠는 "올해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다가야에서 사부대중이 모이지 못했다"며 "그러나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각자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간에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일 수 있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한 것은 불법의 발전과 일체중생 행복을 위함"이라고 기도 목적을 밝혔다. 까규몬람에서 봉행된 상사공양 기도는 코로나 19의 소멸과 세계평화를 위해 회향됐으며 특별히 최근 입적한 틱낫한 스님과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인 도둡첸 린뽀체를 위한 회향도 포함됐다.

마지막 날 봉행된 마리지천 천공기도에 앞서 까르마빠는 "마리지천은 티베트, 중국, 일본불교가 모두 공경하는 본존이며 심지어 중국의 도교에서 모시기도 한다"며 "본존은 특히 여러 위험과 재난을 피하는 공덕이 크기에 지금 같은 시국에 마리치천 다라니를 염송한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도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소멸을 위해 까르마빠가 특별히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에 사용된 〈마리지천다라니경〉은 17대 까르마빠가 여러 판본의 경전을 살펴 새롭게 편역한 것으로, 특히 스리랑카 출신의 역경승 불공삼장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티베트어로 번역해 의미가 있다. 편역된 경전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매몰 위기 고대 보살상 새로운 거처 찾다

연못서 발견된 1t급 보살상
지역주민들 보호운동 펼쳐



연못에서 인양된 석조보살상.
사진출처=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남서부 케랄라 주, 코일란디(Koyilandy) 마을 인근 연못에서 발견된 고대 보살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인도 매체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2월 18일 보살상과 얽힌 이야기를 보도했다. 코일란디 마을 인근, 멜루르(Melur)지구 연못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고대 석상 한 구가 잠겨있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오랫동안 파티칼라판(Pathikalappan) 신상으로 소중히 여겨져 왔다. 주민들은 "40년 전, 관개수로가 놓이기 전까진 매년 여름 연못의 물이 줄면서 성상을 친견하고 불공을 드릴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연못 속에 잠겨있던 석상은 최근 지역당국이 연못을 매립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케랄라주 고고학부서의 담당 하에 연못 밖으로 인양됐다. 고고학자들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석상의 정체가 불교의 보살상으로 밝혀졌다.

높이가 150cm에 달하며 무게는 약 1t으로 화강암 하나가 통째로 조각돼 조성됐다. 수몰에 의한 경미한 마모 외엔 팔다리 장신구나 보관과 같은 장엄들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최근 보살상을 조사한 스리 상카라차리야 대학 불교연구센터의 아제이 세카르 박사는 "9~12세기에 조성되던 양식의 보살상으로 지장보살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양식은 후기 대승불교 일파인 밀교미술의 표현으로 남서인도 곳곳에도 비슷한 양식의 불교유물들이 잔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보살상의 새로운 봉안처를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 본래 모셔졌던 연못근처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의장인 카루나카란 칼라망갈라는 "본래 보살상이 잠겨있던 연못에서 500m 거리에 본래 보살상이 안치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다"며 "지역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래의 보살상이 모셔져 있던 기단 유적이 남아있다. 보살상은 본래의 자리에 모셔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전직 대통령서 큰스님까지 마지막길 배웅한 '염장이'



대통령의 염장이
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1만4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염습(襲)이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염장이는 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흔히 장례지도사라고도 한다. 이를 천직이라 여기며 근 30년간 당대 큰 스님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9인중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등 여섯 분의 장례를 도맡아온 사람이 있다. 세간에 '대통령의 염장이'로 알려진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1호 유재철 연화회 대표다. 죽음을 돌봐온 유재철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법정 스님, 숭산 스님 등의 큰스님들과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이맹희 前 CJ그룹 명예회장 등 재벌총수들, 이매방 무용가, 여운계 배우, 이경해 열사 등 유명 인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다고 그가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장례를 맡아온 것은 아니다. 일반인은 물론 노숙자, 이주노동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한 무연고자의 장례도 치르고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을까? 그가 치르는 장례식은 무엇이 다를까?

그 해답이 이번에 유재철 대표가 펴낸 〈대통령의 염장이〉 속에 담겨 있다. 그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상실의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삶의 현장, 그곳을 30여 년간 묵묵히 지켜온 어느 염장이의 장엄한 기록들이 이 책에 켜켜히 들어있다.

저자는 책에서 시신을 만지는 불결하고 천한 일을 한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놓일 때도 많았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저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드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으로 결눈질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처음 장례 일을 배우고 나서 2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지역서 유명하다는 장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이젠 나름 잘 안다고 자신했을 무렵 자신을 꾸짖은 스님들을 찾아가 겸손히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동국대서 '단체장'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이 50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서 '국가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상·장례를 학문적으로 위상을 높인 저자는 이제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의미 없고 근거 없는 관행을 바로잡으며, 장례의 뜻을 살린 새로운 시도들로 보다 나은 장례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의 이런 장례에 대한 진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 중 하나가, 꾸밈없이 진솔하게 그의 경험과 생각을 써내려간 이 책이다. 고인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공명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64편의 에세이가 담긴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수천 가지 죽음의 얼굴'에서는 무연고자부터 대통령까지, 이주노동자부터 재벌총수까지 각계각층의 장례를 이끌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생생히 들려준다. 또한 세간에 알려지지 않던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접할 수 있다. 2부 '웰다잉 안내자'에서는 죽음과 장례의 본질에 대해 다룬다. 장례지도사라는 직업과 편견, 우리나라 장례문화,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을 되짚어본다. 지금껏 당연시 해왔고,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과 장례문화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던 삶 이후의 삶, 그 감동 실화들이 생생히 펼쳐진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근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죽음을 만났다. 그중에는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 여섯 분이 있어, 나는 '대통령의 염장이'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평범하건 유명인이건 염습에는 차이가 없다.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고인이다. 고인을 생전 모습처럼 모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고인이 누구든 마음을 다해 염을 하는 게 내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장례식장은 삶과 죽음이 뒤섞인 현장

이 책에는 '수천 가지 죽음의 얼굴'과 '웰다잉 안내자'라는 주제 아래 64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가 30여 년간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겪었던 에피소드, 죽음과 삶에 대한 통찰,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대한 성찰 등을 기록한 것이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죽음의 현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인간 군상 모습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고인의 꽉 움켜쥔 손에서, 일그러진 입술에서, 차마 감지 못한 눈에서, 평안히 잠든 듯한 표정 등에서 임종 직전 그들의 모습과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시청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염불을 외는 대신 대중가요를 부르는 스님, 상속 문제로 서로 싸우는 유족,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며 춤추는 제자 들은 다양한 삶의 풍경을 이룬다.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숙연하며,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가슴 뭉클한 인간사가 모두 여기에 있다.



저자,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제1호
30년간 묵묵히 지켜온 장엄한 기록
저명 인사들 장례식 에피소드 소개
법정 스님 '무소유' 장례 감명 받아

저자는 책 속에서 "볕 좋은 날 아침,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목욕하셨다. 그러고는 분홍 치마저고리를 꺼내 입으셨다. 할머니의 아들이 출근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소파에 앉아 느린 손짓으로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 며느리가 설거지하면서 보니 할머니는 따뜻한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소파에 가만히 누워 계셨다. 한 시간 후, 집 안 청소를 마친 며느리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소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의 장례식이 진행되면 그 과정 대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기획하고 식 전반을 이끄는 장례지도사만 알 수 있는 이야기와 포착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 이 책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장례식 뒷이야기들도 담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묘미중 하나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에서 노란 추모 리본의 탄생 비화,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영결식에서 태극기가 함께 매장되던 일화,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때 완장과 의장대의 장갑이 없어진 이유, 노태우 前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생략하게 된 사연 등을 들을 수 있다. 엄숙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를 따라 책장을 넘기다 보면, 생생하면서도 은밀한 역사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저자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지금껏 치렀던 어떤 장례보다 조문객이 많았다. 조문 행렬이 길다 보니, 조문객 한 명에게 할당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잠깐 예를 갖추고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는 슬프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가 충분치 않아 보였다. '이것 말고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궁리하던 중, 문득 옛날 상여 행렬에서 휘날리던 만장과 절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소원지가 떠올랐다. 거기서 착안한 것이 '노란 리본'이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큰 장례를 치른 노련한 저자도 햇병아리 시절이 있었다. 3년 차 였던 1996년 6월 25일, 일붕 스님이 입적했을 때였다. 서울 종로 일붕선원서 7일장으로 치러졌는데, 당시 이런 대규모 장례가 처음인 저자는 첫날부터 허둥됐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큰 스님들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은 당연지사. 저자의 뒤에 서서 "옷 고름도 못매느냐?" "왜 그렇게 승복을 입히느냐" 등등 서슬퍼런 야단에 저자의 큰 장례식 데뷔전은 진땀을 흘리며 끝났다.

저자는 "그 당시 큰 스님들에게 꾸중을 듣긴 했지만, 그때 스님들께서 해주신 조언들이 장례지도사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됐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꼽는 인상 깊었던 다비식은 법정 스님때 였다. 2010년 3월 11일 스님께서는 생전에 관도 꽃상여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도 다비장까지 운구하려면 상여가 필요했는데, 마침 누군가 법정 스님이 오대산 암자에서 낮잠잘 때 쓰시던 대나무 평상을 길상사로 옮겨 놓았다. 딱 한사람 누울수 있는 크기인 그 평상에 법정 스님을 뉘었다. 위패에도 이런 저런 문구없이 '비구법정' 네글자만 썼다. 이 모든 것이 법정 스님 다웠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무소유'를 지근거리서 목격한 것은 저자 자신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이었다고 피력했다.

고인 중심의 장례식을 기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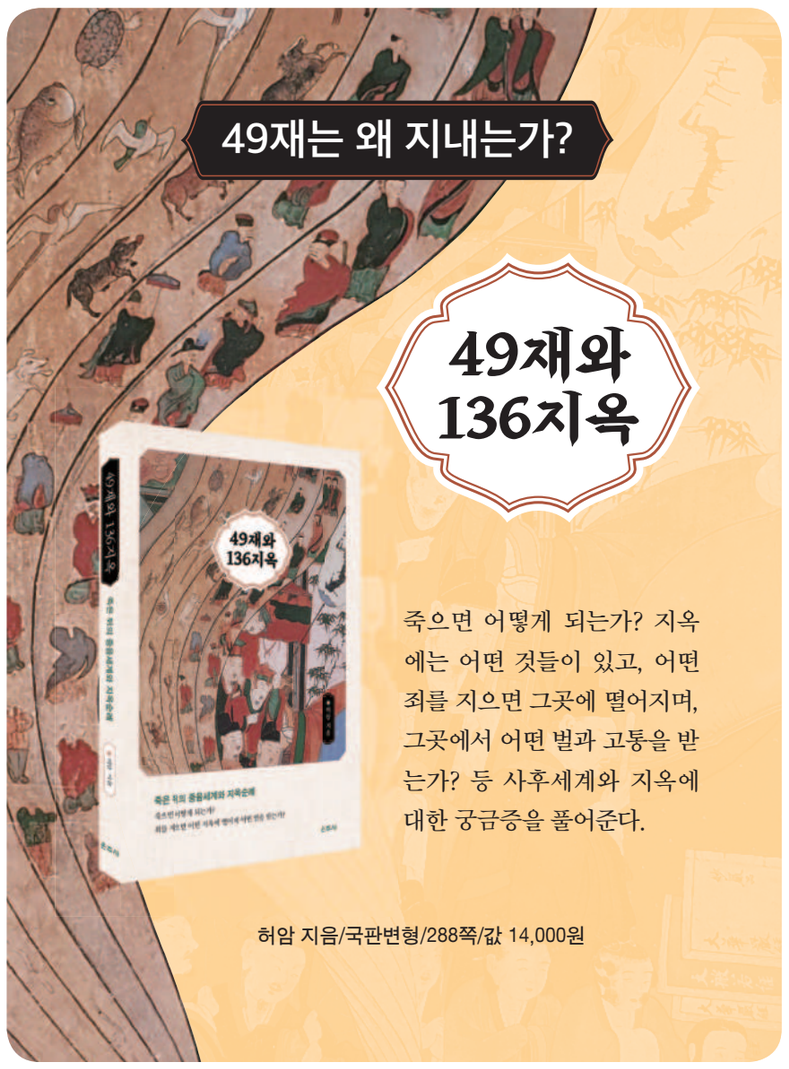
주변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문자메시지로 부고 소식을 받고, 조문 가서 조위금 내고,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한 뒤, 유족에게 위로 말씀 전하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빈소서 나오는 과정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왜 죽음의 모습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모두 천편일률적일까?' 획일화된 장례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는 장례에도 고인에게 맞춘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고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고인에게 어떠한 뜻이 있었는가에 맞춰 장례식을 설계한다. 오직 고인을 중심으로 한 의식은 마지막 길을 떠나는 분에 대한 최고 예우일 뿐만 아니라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의 참뜻을 살리는 일이 된다.

저자는 "유명 인사의 장례식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장례식에는 기획이 필요하다. 그냥 장례지도사가 하자는 대로 쫓아갈 일이 아니다. 기획이라고 해서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식의 의미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고인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시를 낭송해도 좋다. 생전에 찍은 고인의 영상을 조문객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거나 장례 기간에 애도식을 따로 진행하고 추도사를 읽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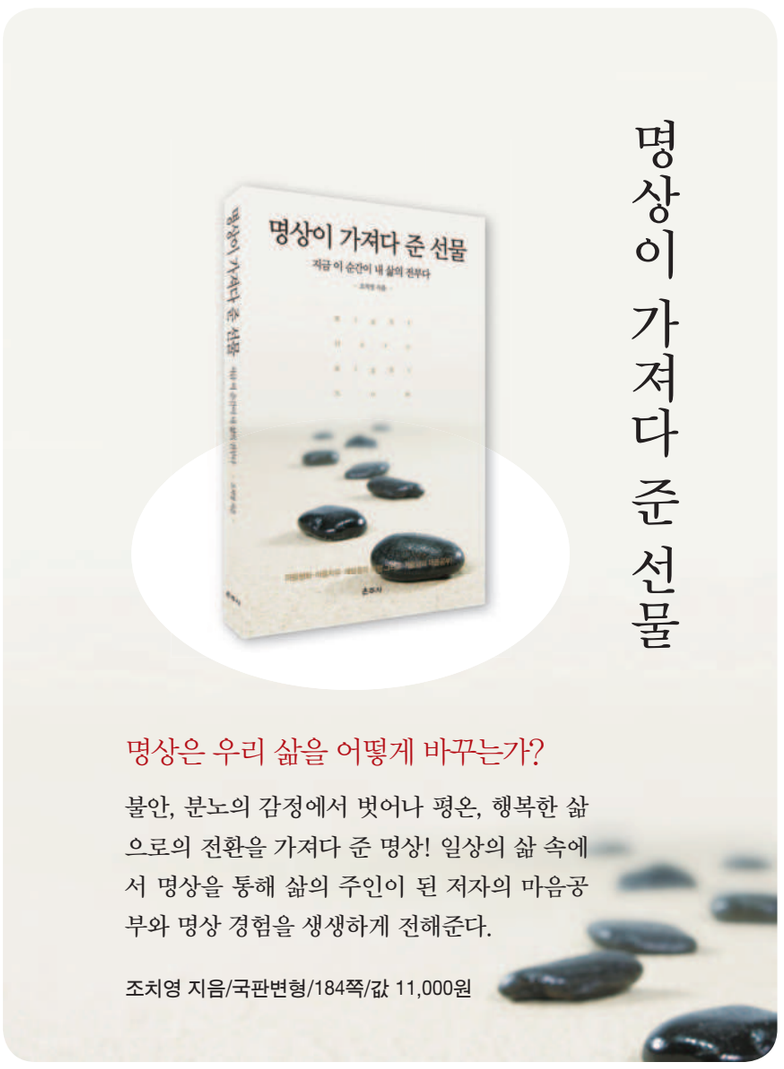
준비하는 죽음을 맞으라, 웰다잉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더 좋은 직장에 입사할 수 있을까?' 등 삶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며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볼 기회는 거의 갖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 현장서 일하는 그에게 죽음은 삶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죽음은 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와 같은 인생의 화두를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발하듯, 그는 그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죽음을 맞으라고 권한다. 또한 가망 없는 환자의 목숨줄을 연장하는 연명치료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길인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장례식은 무엇인지, 진정한 웰다잉(Well-dying)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유재철**은?
대한민국장례문화원 · 연화회 ·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1호이다. 동국대서 '단체장'으로 석사학위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서 '국가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서 장례 비즈니스 아카데미(F.B.A.: Funeral Business Academy) 과정 외래 강사 및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장례지도사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 김대중 · 김영삼 · 노태우 · 최규하 등의 전직 대통령과 법정 · 숭산 · 법전 · 무진장 · 일붕 등의 큰스님,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이맹희 前 CJ그룹 명예회장, 이매방 무용가, 여운계 배우, 이경해 열사 등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깨달음과 아름다움 추구한 화승의 세계

국립중앙博 불교회화실 전시 교체
'화승(畫僧) – 끝나지 않은 이야기' 展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과 연계해
'통도사 팔상도 밑그림' 등 14점 전시
조선 화승의 작품과 예술 세계 조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阿彌陀極樂會圖, 307.5cm×244cm)' –화승 의균(義均)의 대표적인 불화로,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를 간결한 구도와 최소한의 상징만으로 그려냈다.



'쌍월당대선사 진영(181.5cm×80.7cm)' –축연이 그린 쌍월당 성활 스님의 진영. 명암법과 원근법 등 새로운 근대 양식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이 1월 28일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를 교체했다. 교체 전시 '화승(畫僧) -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3월 6일까지)'과 연계한 전시로, '통도사 팔상도 밑그림(유성출가상)' 부터 근대에 활동하며 조선 후기 승려 장인의 맥을 이었던 화승의 작품까지, 특별전에서 소개하지 못한 14점의 작품과 화승의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했던 화승의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조선의 승려 장인은 출가한 수행승이자 예술가로서 조선시대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 또 다른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화승 장인만 무려 2400여 명에 이른다. 조선시대는 이른바 승려 장인, 승장(僧匠)의 시대였다. 사찰 전각의 축소와 중건을 비롯하여 내부에 봉안되는 불상, 불화, 범종과 같은 불교미술품들이 승장에 의해 조성됐다. 사찰은 조선시대 미술의 제작처이자 소비처로서 중요한 공간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일생동안 불보살을 그림으로써 성불하고자 했던 이들을 화승이라고 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인근 지역 불사에 초빙되어 불화를 그렸다. 먼 거리, 어려운 불사를 마다하지 않고 작업하며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제자에게 전수했다. 시간이 흘러 하나의 유파를 이루기도 하고 다른 유파와 협동 작업도 하면서 지역별로 양식적인 차이가 뚜렷한 조선 불화의 조형성이 만들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은 우리나라 불교회화의 흐름과 특징을 살필 수 있도록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러 불화를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다. 불교회화실은 6개월 주기로 전시를 교체하고 있다.

△'통도사 팔상도 초본(유성출가상, 조선 18세기, 종이에 먹)'은 1775년 화승 수십 명이 함께 조성한 '통도사 팔상도(보물 제1041호)' 중 '유성출가상'의 밑그림이다. 팔상도는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으로, 그 중 '유성출가상'은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위해 궁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뒷면에는 근대에 널리 이름을 알렸던 화승 철유(1851~1917)가 1891년 금강산 건봉사 팔상전 불사에 이 밑그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밑그림의 전승과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밑그림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넘어 완성된 불화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지장보살(조선)'은 석민, 굉원, 치흠, 풍연, 추계 5명의 화승이 그린 작품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한 뒤부터 미륵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의 무불시대에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화 · 구제하는 자비로운 보살로, 모든 중생을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 그림은 대구 북지장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비롯하여 명부시왕과 사자, 판관이 주위에 묘사되어 있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阿彌陀極樂會圖, 조선, 동화사 중전 봉안)'은 동화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 의균의 대표 작품으로,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를 간결한 구도와 최소한의 상징만으로 그려냈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 등 여섯 보살이 둥글게 원을 그리듯 그려져 있다.

△'쌍월당 대선사(雙月堂大禪師眞影, 조선)'는 화승 축연이 그린 승려 쌍월당 성활의 진영이다. 찬문을 기록한 붉은 족자의 축두(軸頭)에는 '혜산(蕙山)'이라는 작은 글씨가 남아 있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불화를 그렸던 축연이 그린 진영임을 알 수 있다. 쌍월당의 안면, 회색 장삼과 붉은 가사의 표현에 음영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배경에 놓인 청화백자 연적과 층층이 쌓여 있는 책의 묘사에서 명암법과 원근법이 보이는 그림은 근대기 새로운 양식을 보여준다. 사실적 표현을 추구한 점 또한 이전 시기의 불화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근대기 불화의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는 진영이다.

△'권수정업왕생첩경도(조선)'은 각수승 연희가 조성한 목판화로, 강희(康熙)21년 경상도 울산 원적산 운흥사에서 개간된 〈권수정업왕생첩경(勸修淨業往生捷徑)〉을 한지에 목판인쇄한 것이다. 상단에는 아미타팔대보살을, 하단에는 상품상생(上品上生)에서 하품하생(下品下生)에 이르는 구품(九品)의 근기에 따라 왕생하는 모습을 연화줄기가 자라나는 연못을 배경으로 나타내었다.

△'고운사 시왕도 초본'(제1진광대왕)은 신겸의 작품으로, '지옥의 여덟째 왕 평등대왕(第八平等大王)'의 밑그림이다.

△'지옥의 여덟째 왕 평등대왕'(第八平等大王)은 고운사 시왕도 밑그림의 완성작이다. 평등대왕은 죽은 사람의 100일째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 팔한팔열(八寒八熱) 지옥을 다스린다. 죄복의 업을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하여 평등왕이라 한다. 톱의 의해 몸이 잘리는 거해(鋸解) 지옥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그림에서는 형틀 속에 가둬두고 톱질하는 장면과 끓는 열탕 속에 빠뜨리는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은 또 하나의 아미타극락회도로, 신겸 등이 그린 작품으로, 약사불이 사천왕과 보살 및 제자들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모습을 그렸다. 약사불의 양 옆에는 젊은 모습의 제자 아난과 나이든 모습의 가섭이 있고, 화면 윗부분에는 다시 십대제자를 작게 그렸다. 이들은 출가한 승려이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나한이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회상에는 이처럼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른 성중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묘법연화경(조선)'은 대표적인 불교 경전의 하나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권5~7(보물)에 해당되는 목판본이다. 한 장에 모든 권속을 등장하게 한 구도가 가장 크고 새김이 정교하여 어느 〈법화경〉 변상도보다도 뛰어난 작품이다.

△'묘법연화경(상지은니묘법연화경, 국보, 고려)'은 상수리나무 열매로 물들인 갈색 종이에 은니로 사경한 것으로, 7권 7첩의 완질본이다. 접장 뒷면에 영암도갑사유전(靈岩道岬寺留傳), 당사유전(黨司留傳)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도갑사에 봉안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화승 약효가 그린 '현왕도', 또한 그의 화풍이 느껴지는 '산신도', 축연의 '아미타극락회도', '불설대승조상공덕경 권하' 등이 전시된다. (02)2077-9000.



2022년도 불교달력 사진작품 공모전 금상 수상작 김유식 _선 그리고 사찰

도반HC, 달력 사진 · 미술작품 공모

접수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350만원, 4월 15일 개별통보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주혜 ·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가 '2023년 제2회 불교달력 사진 · 미술작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달력으로 제작 가능한 사계절(1~12월)을 담은 12컷의 사진 및 미술작품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jpg 또는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시 사진 및 작품 크기는 가로 305mm×세로 307mm 이상 해상도 300dpi로 원본 제출하면 된다. 심사발표는 4월 15일 개별 통보한다. 시상내역은 대상(350만원, 1명), 금상(250만원, 1명), 은상(200만원, 2명), 동상(100만원, 2명), 입선(10만원, 컷, 작품 당)이다.

㈜도반HC는 공모전 선정기준으로 △선정 주제에 맞는 12개 사찰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과 작품 △사찰 및 불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과 작품 △새로운 구도 및 참신한 구성의 사진과 작품 등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세부주제로는 △사찰 관련 - 사찰풍경, 석탑, 적멸보궁, 마애불, 석등, 암자 등 △불교 관련 - 동자승, 부처님, 부처님일대기, 수행, 꽃살문, 연등 △문화유산 -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 성지순례(국내외) △자연 주제 - 연꽃, 야생화, 나무, 동물 △국내외 여행지 - 바다, 둘레길, 산 △미술작품 - 수채화, 유화, 수묵화, 펜화, 켈리그라피, 일러스트, 회화, 종이공예, 판화 등을 추천한다.

접수는 도반HC 또는 승소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이메일(dobancalendar@naver.com)또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230호 도반HC 달력사업부 앞)으로 하면 된다. 문의(02)720-0677, 0670. 이번 공모전을 주관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는 "기존 불교 달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롭고 참신한 작품 발굴과 함께 신규 작가들을 지원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출품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금동대향로 새 장식, 봉황 아닌 '금시조'"

진영아 위원, 제1회 미술사 학술상 대상 논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고대 유물에는 새 모양의 장식이나 도상이 있는 경우 많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국보인 백제 금동대향로로 향로 정상부에는 목에 보주를 끼운 새 한마리가 날아갈 듯 서 있다. 많은 학자들은 향로 정상의 새가 봉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주가 있는 새 문양이 도교의 봉황이 아닌 불교의 '금시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2월 25일 제1회 미술사 학술상 논문 공모 시상식을 열고 첫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진영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위원에게 시상했다.

진 감정위원은 '고대 금시조 도상에 나타난 보주 연구-여의주와 마라가타를 중심으로'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금시조와 봉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불전(佛典)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금시조의 지물인 보주를 살폈다.

진 감정위원에 따르면 금시조는 범어로 '가루다'로 불리던 새로 불전에는 가루라, 가유라, 묘시조 등으로 음역·의역됐다. 하지만 중국 불교 전래 초기 낯선 가루라를 봉황으로 이해하고자 했고, 실제 〈해룡왕경〉 역자인 축법호의 역서에는 이 같은 예가 남아있다. 하지만, 5~6세기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정상부의 새 장식. 일반적으로 봉황이라고 해석하지만, 목에 보주를 끼고 있는 것을 볼 때 불교의 금시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內 불교 전래 초기에는
봉황-금시조 비슷하게 인식
시간 지나며 엄격하게 구분

보주, 금시조 도상 대표 특징
목 보주, 佛典에 여의주 서술
금동대향로 등 새 장식 다수
봉황표기의 오류…수정 필요

에 접어들면 금시조와 봉황은 다른 새로 인지됐고,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금시조가 도교의 봉황보다 우월하다는 주장까지 피력됐다.

많은 불전에 묘사된 금시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주'이며, 이는 봉황과는 차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금시조의 보주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그 의미도 차이가 있다. 〈법화문구〉〈유마경문소〉〈해심밀경소〉 등에는 목에 나타난 금시조의 보주를 '여의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진 감정위원은 "금시조가 죽어 심장만을 남겨 이 여의주를 전륜성황이 취한다는 설화가 있다"면서 "이는 여의주와 전륜성왕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리에 물고 있는 금시조의 구슬을 '마라가타'라고 하는데 경전에는 보주의 색이 녹색이며 모든 독기를 물리친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진 감정위원은 "불교 내에서는 봉황과 금시조를 엄격히 구분해 금시조를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고, 특히 금시조와 함께 여러 보주를 언급해 구슬은 금시조 도상의 차별점"이라며 "기존 봉황으로 풀이한 문화유산 가운데 목이나 입에 구슬이 표현된 경우 금시조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보 백제 금동대향로부터 부여 외리 출토 '새문양 전돌', 부여 용정리 출토 '새문양 전', 안압지 출토 '새모양 장식', 무령왕비 두침(베개) 등을 꼽았다.

진 감정위원은 "봉황은 도교를 상징하는 새다. 해당 유물들에 도교가 반영됐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도교와 불교가 습합됐다는 막연한 인식만 낳을 수 있다"며 "유물 출토지가 사찰터이므로 불교적 관점에서 도상학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전리사지, 신라 승관사찰로 중창"

불교문화재연구소 · 삼척시, 2월 24일 학술대회



대규모 산지가람으로 추정되는 발굴 성과가 다량으로 나온 삼척 흥전리사지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삼척 흥전리사지 조사성과와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흥전리사지는 2014년부터 7년 동안의 발굴 조사를 통해 대규모의 산지가람임이 밝혀졌다. 절터에서는 '국통(國統)', '화상(和尙)' 명 비편 등이 출토됐으며,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이 새겨진 청동인장이 처음 출토돼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승단조직의 실체가 증명됐다.

이날 박승현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관은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에서 삼척 흥전리사지가 '신라 승관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라 승관 제도는 사찰과 교단을 통솔하기 위한 제도"라며 "출토된 청동인장인 '범웅관아지인'에서 '범웅'은 부처님을 의미해 부처님의 관아, 승관의 도장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신라 후기 신라 왕실의 지방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세력들이 대두되고 김헌창의 난 등이 발생하자 신라 왕실은 불교의 힘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방세력을 견제하려 했다"며 "흥전리사지는 이러한 신라 왕실의 노력으로 중창된 승관사찰이자 선종사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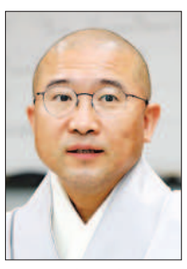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삼척 흥전리사지의 건축(현승욱, 강원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기와로 본 신라 조와기술의 수용과 전개(최영희, 강릉원주대) △삼척 흥전리사지의 지형 입지환경(양정석, 허의행, 최세형, 수원대) △삼척 흥전리사지의 입지와 그 역사적 의미(정요근, 서울대) 등이 발표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통해 2021년 1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삼척 흥전리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을 검토 보류한 흥전리사지의 인문학적 검토를 보강해 올해 상반기에 사적지정신청서를 보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리더십 · 명상…스님 박사 논문들 '눈길'

오심 스님 한양대서 학위
마가 · 동표 · 현암 스님
중앙대서 박사3명 탄생해


오심 스님


마가 스님


동표 스님


현암 스님

출가 후 법계가 올라가도 스님들은 꾸준히 수행하고 공부한다. 이 같은 노력들은 박사 학위로도 결실을 맺는다. 올해도 적지 않은 스님들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불교신문사 주간 오심 스님은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근대불교 종단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구하 천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구하천보(天輔九河, 1872~1965) 대종사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 명으로 오심 스님은 대종사의 행적 등을 살피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고찰했다. 특히 오심 스님은 "구하 대종사의 리더십에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인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 △비전 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구하 대종사는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환경에서 조국의 해방이라는 변화를 모색했다. 해방 이후에는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통도사의 주지로서 사찰의 개혁과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면서 "이러한 리더십은 분명한 목표 설정, 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소통과 화합능력, 적재적소에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의 실천활동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에서는 3명의 스님 박사학위자가 탄생했다.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실천불교학 전공)**은 **'자비명상의 생리 · 심리학적 효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가 스님은 서울 소재 사찰에서 자비명상 수강생 38명에게 혈중 호르몬 검사와 심리 검사를 연구 동의를 얻어 시행했고 이 중 2차례 걸친 검사와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모두 실천한 사람은 18명이었다. 검사 결과 수행 이후 모두 세로토닌은 증가했고, 도파민은 유지했다.

마가 스님은 "자비명상을 매일 실천하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들은 수행자들에게 성취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는 삶의 의욕과 흥미를 자극했을 것"이라며 "자비명상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추측된다"고 밝혔다.

동표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부산광역시 소재 2곳의 학교에서 학생 424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기술과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동표 스님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적 적응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관계 형성 요인인 또래관계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암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윤회사상에 있어서 사유설에 관한 연구-한역 불전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윤회에 대한 시대별 한역 불전의 전거를 제시하고, 죽음의 과정과 죽음 이후 재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사유(四有)의 각각 개별유(有)로 분석 · 고찰했다.

신성민 기자

선암매 · 고불매 · 화엄매, 3월 말 만개

문화재청, 한국 4대 매화 개화 시기 발표

한국의 4대 매화로는 일찍이 순천 선암사 선암매,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매화, 강릉 오죽헌 율곡매를 꼽는다. 이런 이유로 4대 매화는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매서운 겨우내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는 매화는 역경을 견디고 지조를 지키는 군자를 닮아 조선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결함을 상징하는 매화의 올해 만개 시기가 발표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 매화나무의 개화소식을 2월 24일 알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매화와 순천 선암사 선암매는 3월 20일경에 개화 예정이다. 장성 백양사 고불매는 이보다 사나흘 뒤인 3월 25일경에 활짝 핀 꽃을 보게 될 전망이다. 화엄사는 매화 사진 공모전인 '제2회 홍매화 · 들매화 사진 대회'(3월10일~27일)를 연다.

다만, 노거수인 강릉 오죽헌 율곡매는 2017년 닥친 급작스런 기온상승에 피해를 입어 연내 개화 소식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3월 말에 괴산 송덕리와 영동의 미선나무 꽃이 피고 4월 초순경에는 구례 화엄사의 올벚나무 꽃이, 4월 말에는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꽃이 피는 등 천연기념물 식물의 개화소식도 있다.

문화재청은 "매화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식물이 제철을 따라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연유산이 일상 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체험 · 향유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일시호일

뇌출혈·골절상으로
혼수상태 빠진 가장의 사투

네팔 이주노동자 케빈씨…가족 위해 공장일에 배달까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사경 헤매…병원비 4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5

▶ 56회 예고
아쇼까는 건강이 악화된 빈두사라왕을 겨우 알현한다. 빈두사라왕은 아쇼까 앞에서 친위대장을 불러 수시마를 귀국시키라고 명한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 두 번째 부인 아상디밋따, 처음으로 동생 비가따쇼까도 만난다.



아쇼까, 웃자인 데비와 헤어지다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특사 일행이 웃자인에 도착했다. 빈두사라왕의 측근인 특사는 빠딸리뿌뜨라 외성을 축조하는 데 총책임자였다. 그런데 그도 역시 칼라따까 수상에게 매수된 인물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총애하는 탁실라 부왕 수시마가 특별휴가를 받아 왔을 때 칼라따까의 지시를 받고 내성과 외성을 드나드는 수시마 가족과 측근 신하들을 일일이 칼라따까에게 구두로 보고했던 것이다. 웃자인에 도착한 특사는 왕궁 접견실에서 아쇼까 부왕을 만난 뒤 바로 빈두사라왕의 명령서를 내밀었다.

"부왕이시여, 대왕님의 명령서입니다."

대왕의 명령서에는 아쇼까가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1년 동안 특사가 부왕을 대신하여 웃자인을 통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왕님은 안녕하시오?"

"지병으로 편치 않으십니다."

특사는 또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칼라따까가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특사를 신뢰해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대왕님을 문병하고 싶었는데 특별휴가를 받아 다행이오."

"대왕님께서는 부왕님을 보시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수시마 형님이 계신다면 더 위로를 받으시겠지요."

특사는 문득 칼라까따가 "대왕님은 수시마 왕자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하지."라는 말이 떠올라 잠시 침묵했다.

"수시마 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계신 동안 아무 일이 없었소?"

"왕자님이 빠딸리뿌뜨라에 남아야 한다고 빈두사라 대왕님께 건의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 왕자님께서는 탁실라로 떠나시지 못할 뻔했습니다."

"칼라따까 수상이나 라다굽따 제관이었소?"

"그분들은 아닙니다. 수시마 부왕비님을 따르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아쇼까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형수인 부왕비를 부추기어 수시마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신하들이 병고에 시달려온 빈두사라왕 주변에 있다는 특사의 보고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아직 건재한데 있을 수 없는 망측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았던 수시마와 자신을 이간질시키는 모사이기도 했다. 아쇼까는 장자인 수시마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형수님에게도 문제가 있소."

"그렇습니다. 부왕비님이 대왕님의 총애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아쇼까는 자신을 늘 이중적으로 대하는 형수를 좋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혹시나 수시마가 능력이 출중한 아쇼까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고 경계했던 것이다. 수시마 역시 아내의 이간질 때문인지 아쇼까를 어딘지 모르게 멀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수시마 형에 대한 아쇼까의 호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형수님은 욕심이 많은 분 같소. 그러나 수시마 형님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없으니 상관없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수시마 형님을 따랐소. 수시마 형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나는 도울 것이오."

"두 분 사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왕비님을 부추기는 일부 신하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쇼까는 특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가 칼라따까의 심복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수시마와 부왕비, 그의 일파를 비난하는 어조로 보아 칼라따까의 측근임이 틀림없었다. 칼라따까가 그를 웃자인 특사로 보낸 이유도 분명했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동안 웃자인을 잘 통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터였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와 동생 비가따쇼까에 대해서도 물었다.

"어머님과 동생도 잘 있겠지요."

"다르마 왕비님은 부왕님을 보시기만 해도 병석에서 바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비가따쇼까 왕자님도 잘 계십니다. 특히 대왕님께서 왕자님을 총애하십니다. 부왕님께서 특별휴가를 받은 것도 비가따쇼까 왕자님께서 대왕님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아, 비가따쇼까 동생이 더욱 보고 싶소."

"아상디밋따 부왕비님도 잘 계십니다."

특사는 아쇼까 아들인 꾸날라의 안부는 말하지 않았다. 꾸날라는 첫째부인 빠드마바띠가 낳은 아들로 그녀가 죽자 둘째부인 아상디밋따가 키웠는데, 꾸날라는 지금 빈두사라왕의 지시로 탁실라에 가 있었으므로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쇼까가 꾸날라를 들먹였다.

"꾸날라는 열두 살이 됐겠군. 열두 살이면 말도 타고 활도 잘 쏘겠지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꾸날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승마나 활쏘기보다는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군."

특사는 아쇼까가 꾸날라에 대해서 더 묻지 않자 안도했다. 잠시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하는 척하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특사께서는 오늘은 푹 쉬시오. 내일 이곳 관리들에게 공무를 인계받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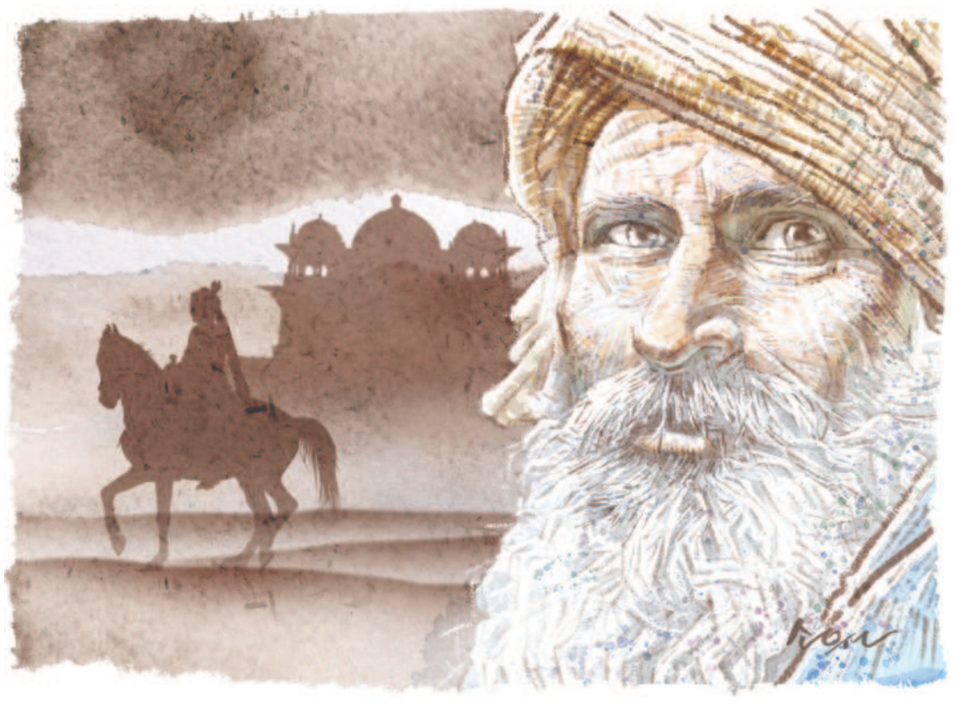
"부왕님, 천천히 인수해도 됩니다."

"아니오. 대왕님의 명이 내려졌으니 나는 모레라도 빠딸리뿌뜨라로 떠날 것이오."

"알겠습니다. 부왕님을 대신하여 웃자인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담마팔 사문도 특사 일행과 함께 왔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사문께서는 데비 부왕비님의 편지를 받고 왔기에 부왕비님 별궁으로 먼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문이 왔으니 산치 절에 수행자들이 모이겠군."

"사문께서는 내일쯤 왕궁으로 들어와 부왕님께 면담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소. 먼 길을 왔으니 오늘은 돌아가서 쉬시오. 내일 아침에 웃자인 관리들을 불러들이겠소."

특사가 접견실을 나간 뒤 아쇼까는 경비대장을 데리고 데비 별궁으로 말을 타고 갔다. 경비대장이 앞서 달려 나가자, 경비병들이 재빨리 아쇼까가 탄 말을 앞뒤로 호위했다. 시프라강 너머에서 뿌연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회오리바람은 버섯 모양의 흙먼지 기둥을 일으켰다가는 허공에서 스러지곤 했다. 흙먼지는 강을 건너와 흩어지기도 했다. 사라졌던 경비대장이 다시 나타나 아쇼까 옆으로 왔다.

"부왕비님 별궁에 여러 마리의 말과 마차가 있습니다."

"담마팔 사문도 거기 있다고 들었소."

아쇼까가 흙먼지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마차와 여러 마리의 말이 있다고 해서 경계할 일은 아니었다. 담마팔 사문이 데비 별궁으로 왔다는 소식에 데바와 데바부인, 베디샤나가르 농원의 집사 타리쉬 등이 와 있었다. 타리쉬가 온 이유는 담마팔 사문을 산치 절로 모셔가기 위해서였다.

데비 별궁 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이 아쇼까를 맞이했다. 타리쉬만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쇼까가 손짓을 하자 의자에 앉았다.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에게 먼저 말했다.

"사문이시여, 반갑소. 비가따쇼까 동생을 가르치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총명한 비가따쇼까 왕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소승으로서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산치 절에 머무신다고 하니 누구보다도 데비 부왕비가 좋아할 것 같소."

"저도 고향 절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데바 수장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담마팔 사문이 아쇼까에게 합장한 뒤 접견실을 나갔다. 타리쉬는 벌써 말 등에 앉아서 담마팔 사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담마팔 사문이 말 등에 오르자, 그때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시프라강 쪽에서 올라왔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담마팔 사문을 향해 공손하게 합장했다. 데비를 따라 산치 절에 몇 번을 다녀온 적이 있었으므로 합장 인사가 자연스러웠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곧 데비 별궁 접견실로 들어갔다. 접견실 한가운데 앉아 있던 아쇼까가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보더니 대견한 듯 미소를 지었다. 마힌다가 먼저 아쇼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이어서 상가밋따도 마힌다와 같이 고개를 숙였다.

"오! 마힌다야, 상가밋따야. 너희들을 잠시 보지 못할 것 같구나. 나는 1년 동안 빠딸리뿌뜨라에 가 있을 것이란다."

"저는 걱정 마셔요."

아홉 살의 마힌다가 말했다. 그러나 일곱 살의 상가밋따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빠딸리뿌뜨라가 보고 싶어요."

"특별휴가를 받아 가는 것이니 가족과 함께 갈 수는 없단다."

데바와 데바부인, 데비는 담마팔 사문에게 아쇼까의 특별휴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므로 모두가 담담하게 듣기만 했다. 데바 상인수장이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데비도 갑니까?"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아직 어리니까 웃자인에 남아 있어야겠지요."

사실이었다. 두 남매는 지금도 데비에게 산스끄리뜨어와 베다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다. 왕족으로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데비가 말했다.

"부왕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다만 이곳을 떠나 날마다 산치 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마팔 사문도 오셨으니까요."

"베디샤나가르 농원에 가 있겠다는 것이오?"

"이곳 별궁에 있기보다 농원으로 가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구요."

"아,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소."

데바부인이 데바를 쳐다보면서 아쇼까에게 부탁했다.

"부왕이시여, 빠딸리뿌뜨라에 가 계시는 동안에도 데비와 마힌다, 상가밋따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쇼까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윽고 데바가 부인에게 접견실을 나가자고 눈짓을 주었다. 데바부인이 마힌다와 상가밋따에게 말했다.

"잠시 나가 있자구나."

"예, 내일 또 오겠습니다."

마힌다가 의젓하게 말했다. 데비는 상가밋따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로 떠난다는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참았던 눈물이었다. 아쇼까가 데비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말했다.

"1년이란 시간은 우리에게는 결코 길지 않소. 반드시 돌아오겠소."

"빠딸리뿌뜨라는 이곳과 다를 거예요. 화려하고 분주한 그곳에 가시면 저를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한시도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겠소."

그래도 데비가 다시 눈물을 흘리자, 아쇼까가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들을 보면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오."

아쇼까는 데비를 더욱 힘껏 껴안았다. 그제야 데비는 눈물을 멈추고 안심했다. 그 순간 데비는 산치 절에서 아쇼까를 처음 보았던 날의 가슴 두근거렸던 황홀한 순간이 떠올랐다. 데비는 아쇼까가 준 반지와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다. 반지와 목걸이를 손에 쥔 데비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아쇼까의 약속을 믿었다.〈계속〉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한국불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 회원모집

한국범음범패 역사 120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부산불교어산회(현 사단법인 부산영산재 보존회의 모체) 로서 과거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의 범패소리)를 하는 스님들이 어산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그 행적(行跡)으로

1800년대 | 부산어산회 발족. 기념사업으로 범어사 경내에 어산교 준설
1897년 | 범음요집 발행
1947년 | 대산집 발행
1972년 | 부산무형문화재 제1호 「범음범패」로 지정
1993년 |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지정

본 단체는 선배제현께서 물려주신 의범(儀範)을 수련연마하고
각지역 및 해외 공연과 시연으로 불교전통음악을 널리 알리는 소임을
같이 할 뜻있는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임시모집일 : 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합동수련개시일 :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 문의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산불교어산회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나길 80-42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④ 선승의 태몽



▶한줄요약
선승의 출생담에서 태몽 대신 부모의 '기자정성(祈子精誠, 자식을 얻으려는 기도)'이 들어가기도 한다.

선승 탄생 · 득도, 중생의 삶에 뿌리

5. 부모의 기자정성

선승의 출생담에서 태몽 대신 부모의 '기자정성(祈子精誠, 자식을 얻으려는 기도)' 이 들어가기도 한다. 늦도록 자식을 못 가진 부모가 초월적 존재에게 기도를 올려 자식을 얻는 기자정성 이야기는 우리나라 서사문학에 두루 나타났다. 선승 부모의 기자정성도 그런 이야기 전통과 관련이 있다. 선승의 부모가 불보살께 기도를 올려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부모 곁으로 온 선승이 다시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선승 부모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애틋하다.

보조선사(普照禪師, 804년)의 어머니는 잉태된 아이가 1년이 지나도 태어나지 않자 좋은 인연이 완성되도록 기도를 올린다. 고기와 술도 삼가고 계율로써 태교를 하면서 삼보를 섬긴다. 이런 정성으로 아기 보조가 태어난다. 하지만 아이는 세속을 떠나려는 마음을 일으켜 결국 부모 곁을 떠난다.

원융(圓融, 964년)국사의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 보승여래(寶勝如來, 평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인색과 탐욕을 떨쳐 버리게 해주는 부처님)상을 집에 모시고 기도한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도량을 개설하고 스님을 청하여 경전 강설을 주선한다. 혜소(慧昭, 972년)국사의 어머니는 평소 완전한 덕을 닦아 달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어 잉태한다. 보현보살 탱화 500점을 조성하여 발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출가하여 스님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로부터 오신채와 고기는 일절 먹지 않는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 혜소의 목에는 여의주 같은 원상(圓相)이 있었다.

지광(智光, 984년)국사의 어머니는 자식을 얻기 위해 '광목(光目)과 똑같은 원력' 을 세운다. 광목은 지장보살의 전신인데 살생과 불법 모독으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청정연화목여래를 향한 기도 정성을 다했다. 지옥에서 구출된 광목의 어머니는 광목 집에 종의 아이로 태어난다. 하지만 열세 살이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인과를 벗지 못했다. 광목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여 결국 어머니로 하여금 해탈보살이 되게 하고 스스로도 지장보살이 된 것이다. 지광국사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해 이런 광목 못지않은 서원과 기도를 다한 것이다. 혜덕(慧德, 1038년)왕사의 어머니는 아름답고 온유한 품성으로 삼보에 귀의하며 법왕의 제자가 될 아들을 간절히 구했다. 과연 부처님의 감응을 얻어 잉태한다.

선승의 아버지들도 어머니 못지않았다. 일찍이 가섭의 아버지 니구율타가 나무의 신에게 기도하여 가섭을 낳은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장(慈藏, 590년)율사의 아버지는 늦도록 자식이 잉태되지 않자 관세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자식을 낳게 해주시면 자식을 다시 바쳐서 "진리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나루나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 보조(普照, 1158년)국사의 아버지는 병약한 어린 보조의 쾌유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한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출가하여 부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과연 보조는 나았고 8살이 되자 출가한다. 혜소(慧昭, 972년)국사의 아버지는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 자색 가사 10벌을 스님들에게 공양한다. 환암(幻庵, 1320년)국사의 아버지는 사냥을 하던 중에 달아나던 사슴이 거듭 멈춰 서서 뒤돌아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살펴본다. 멀리 사슴의 새끼가 뒤뚱대며 어미를 쫓아가고 있었다. 짐승이 새끼를 염려하는 것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사냥을 중단하고 다시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곧 병들어 죽고 아기 환암이 태어난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했던 아기 환암이 출가를 하려하자 어머니는 "네가 태어날 때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사슴 어미가 새끼를 걱정하는 걸 보고 느낀 바 있어 사냥을 그만두었지. 너는 강보에 싸였을 적부터 자비와 인자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도리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고 말해주며 출가를 허락한다.

태몽 대신하는 '기자정성'
서사문학에도 다수 등장
보조 · 원융 · 혜소 등 사례
어릴적 행실로 전생 연상

이렇게 선승 부모의 기도는 태몽의 자리에 들어가서 태몽 못지않게 아기 선승을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여 출가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선승의 부모는 자식의 출가를 반대하기만 하지는 않으며, 그래서 자식의 출가로 인해 부정되거나 잊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선승의 성장이나 수행 및 득도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6. 특별한 어릴 적 행실

태몽보다는 태어난 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을 중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선승의 비범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태몽이나 부모의 기도 이야기가 아예 없었거나 그것들이 후대에 누락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선승의 특별한 행실 이야기만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원각(圓覺, 1107년)국사의 어머니는 꿈에서 일산(日傘)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는 아기의 잉태를 암시하는 태몽이라기보다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렬을 미리 보인 풍경에 더 가깝다. 아기 원각이 태어나자 어떤 스님이 찾아와 "저는 국청사(國淸寺) 정원(淨源)입니다"고 인사를 한다. 그러자 아기 원각은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는 듯 정담을 나눈다. 금생에서 만난 적이 없는 스님과 구면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아기 원각의 특별한 행동은 스님이었을 것 같은 그의 전생을 암시한다. 몽월 영흥(夢月泳泓, 1870년경)의 경우는 어머니가 달을 품는 태몽을 제시하면서도 역시 그가 태어나자마자 보이는 행실을 더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몽월 영흥은 어릴 때부터 비린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한다. 이런 특별한 행실에서 불가와 깊은 인연을 만든 자비로운 전생을 떠올리게 된다. 구하(九河, 1872년)의 태몽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니 민속 태몽 중 영웅 탄생과 관련된다. 그래서인지 구하(九河)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뛰어다닌다. 또래에 비해 체구가 압도적으로 커서 보는 사람마다 큰 독수리의 기상이 있다고 했다. 다른 한편 구하는 예의가 바르고 단정하였다. 고아들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이나 옷을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짐승을 죽이는 광경을 보거나 아이들이 짐승을 학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행실은 용꿈이 연상시키는 영웅의 풍모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용감하게 전투하는 영웅과는 달리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행자의 전생을 상정하게 된다.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이렇게 어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을 강조하는 경향은 근대기에 들어오면 더 뚜렷해진다. 운봉(雲峰, 1889년)선사의 경우는 그 어머니가 오색이 찬란한 광채를 보고 잉태했다고 하여 태몽 요소가 희미해지고 그 대신 그의 특별한 행실이 부각된다. 즉, 운봉선사는 13살 때 부친을 따라 팔공산 은해사 구경을 간다. 불상을 바라보고는 환희심과 동경심을 억누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한다. 이런 특별한 행실과 갑작스런 출가는 전생의 수행 인연 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담(靑潭, 1902년)의 경우도 태몽이 없다. 청담은 어릴 때부터 옆에서 짐승을 죽이면 마구 울어댔다. 물고기의 배를 가르는 것을 보아도 얼굴을 찡그리며 못 견뎌한다.

요컨대 근대기로 다가오면서 꿈을 통해 전생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태몽이나 부모의 기도 요인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 어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전생을 간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미래의 출가를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7.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선승 태몽이 민속 태몽의 자장 속에서 생성됐다는 것은 선승의 탄생과 득도가 평범한 마을 중생들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기 선승이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환경에 버려져서도 다시 거두어져 위대하게 된 데에서 중생의 역경계가 불러일으키는 희망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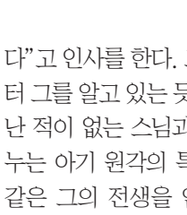
전생의 스님이 어머니를 찾아와 그 아들이 되기를 서원하는 태몽은 불교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룩한 과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환생 과정으로 설명하자면, 선업과 지혜를 갖춘 중유(中有, 죽고 나서 다음의 생을 받기 이전까지의 존재)가 자기의 입태(入胎, 모체의 태속으로 들어감)과정을 바로 알아서(正知) 관찰하는 모습이라고도 하겠다. 또 '부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을 다 제도하셨다' 는 〈선문염송〉의 가르침을 받들게 한다. 나아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을 거듭하는 목숨 건 수행이 이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아니 금생의 모든 생명에는 불보살의 가피는 물론 억겁 세월의 생을 달리해온 분들의 간절한 비원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한다. 이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일인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닦아서 자기 본성을 알게 되는 일이 사람으로 태어난 데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아기 선승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또 어떠한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내 본래면목은 어떤 것인가?(父母未生前 本來面目)' 이 화두가 철두철미 사무치게 들릴 때가 있다. 오늘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선승의 태몽은 어머니 태로 들어오기 전 나의 본래면목에 대한 간절한 관찰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은 우리 부모의 세속적 자식 사랑이 위대한 불보살의 가피와 다름없다는 진실을 믿게 한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부처님 6년 수행 육경신천안통사성제 사구계 사만다라 근본인 사람이 되어 성불하신 법으로 비구 · 비구니 사부대중, 유불선일체 종교가 사람이 된 마음심자로 성불하는 천하제일의 비법문자와 말과 글 · 염불 · 독경 · 화두 · 참선 · 명상 · 수행으로 찾지 못하는 화두의 근본 천안통 대법회

부처님께서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천안통을 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하시고, 숨을 멈추고 1분 2분 3분 4분을 멈춘 생사해탈법은 모든 종교를 초월 새벽, 사시, 저녁, 예불 사분정근이 아니라 진법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헛고생 없이 성불 도통하여 내생에 사람 몸 받는 천안통 대법회가 2022년 3월 7일 밤 해시, 해제 8일 해시에 화요일 경신일 성불도통 단번으로 백년수행보다 견성성불 도통하는 법회 부처님 성불하신 사정제 = 고집멸도의 태란습화이므로 태생은 사람, 난생은 조역, 습생은 충력, 수력은 짐승, 수자, 멸은 무간지옥을 면하는 기도가 천안통이고 사구계는 사 = 수, 육, 보영이고 구계는 진종도 민족업 봉천명이며 잠자는 두뇌를 움직이는 흐름으로 뇌하수체를 깨워 영과 혼 그리고 백을 살려 육신보존으로 생사해탈하는 것이고 이것을 막고 괴롭히는 자는 누구냐 귀신의 집단이며 지면 멸이고 이기면 성불하는 천안통 기도요. 천수경 앞에 나무사만다라의 근본화두를 찾는 것이 수행이지 하안거, 동안거에 있지도 않은 생명인 사람인 화두는 천안통을 하지 않은 비구, 비구니, 보살, 사부대중 수행지망생들은 모두 고행일 뿐이라 하신 것은 말법과 병겁에 불법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중생도 구하는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나무사성계 사구계 나무사만다를 공개하오니 진법을 모르고 천년만년 읽고 수행하여도 근본을 모르기에 결국에는 신장철퇴를 맞고 한생을 보내지는 수행을 초월 한 번의 천안통으로 유불선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마음의 생명에 사람인 천안통 화두에 입문하시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류스승 되소서. 1년 6회 동참비 120만원 이법은 지구촌 어느 대학이나 법전에도 없는 비법공개. 눈과 귀가 있는 자 따라오는 자 살 것이니라.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32-502-6625
010-9292-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하일라이트TV 방영중 (동양철학운명, 성명, 수명, 출세성공, 인생운명 상담)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입 제 일 : 2022년 3월 7일 월요일 해시 ■ 해제일 : 3월 8일 화요일 해시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옷 ■ 무박 2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기도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예금주 : 곽한영) / 1년6회 동참비 120만원 교재비 포함
■ 상담전화 : ☎ 032-502-6625 / 010-9292-3110

귀 천지공사 불선도. 육경신 천문도통회 총본산. 동양철학 운명감정 총본산
귀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예성 용천사. 천룡진인 환성 태일 대종사 합장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❹ 금빛 거위의 전생



▶ 한줄요약
이솝 우화 중 잘 알려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부처님 전생담인 '수완나 함사 자타카'에도 실렸다. 성립 시기는 자타카가 선행돼 이야기의 원전은 부처님 전생담임을 알 수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우화 원전은 '자타카'

옛날이야기를 무척 좋아했던 유년기에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야기책으로 〈한국전래동화집〉 이외에 〈이솝 우화집〉도 있었다. 〈이솝 우화집〉은 다양한 동물들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고 여러 교훈을 전해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엮어진 책이다. 이솝(Aesop)은 그 당시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천재 작가로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감탄을 끝없이 쏟아내게 했던 우상이었다.

이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지역에 살았던 노예였다고도 하고 혹은 그리스 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의 조언자였다고 한다. 대학생이 된 후에 〈이솝 우화집〉은 이솝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전돼 전해진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며, 17세기에 프랑스 작가 라 퐁텐(Jean de La Fontaine, 1621~1695)에 의해 '이솝 우화' 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음을 알았다.

불교와 불교미술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솝 우화와 전생담이 너무도 비슷해서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숙한 이야기가 반갑기도 했었다. 아마도 나의 석사 논문의 주제가 '본생도' 였던 것도 어찌 보면 운명 혹은 시나브로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솝 우화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꼽는다면 아마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일 것이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거위 한 마리가 농장의 울타리 안으로 날아들어 왔다. 농부는 그 거위를 잡아먹으려고 집 기둥에다가 묶어 두었었다. 그다음 날 거위를 요리하기 위해서 묶어둔 곳에 가보니,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알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농부가 알을 자세히 살펴보니 진짜 황금알이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덕분에 농부는 황금알을 시장에 팔아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농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훨씬 더 많은 알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생각에 거위의 배를 갈랐다. 그러나 농부의 기대와 달리 거위의 배에서는 보통 거위들처럼 붉은 피만 쏟아질 뿐이어서, 농부는 뒤늦게 자신의 욕심을 뉘우쳤다고 한다.

라 퐁텐에 의해 정리되고 알려진 이솝 우화는 관련 그림도 17세기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그 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 그대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쥐 박물관의 한적한 복도에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를 그린 벽화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그림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70Km 떨어진 과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 판지켄트(Pyanjikent) 궁전의 벽면을 장식하였던 벽화의 일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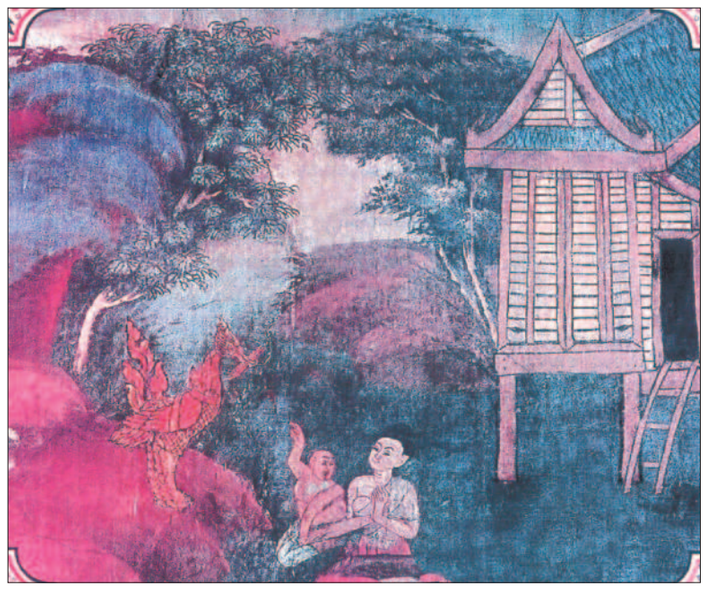
그림①. 우즈베키스탄 판지켄트(Pyanjikent) 궁전의 벽화 일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 묘사됐다. 7~8세기에 조성됐으며,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쥐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솝 우화 중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내용 담아
'자타카'에 황금 거위 이야기 존재
이야기 성립 시기 '자타카'가 선행
실크로드 따라 이야기 구전 전래돼

궁전과 함께 벽화는 7~8세기경 제작된 것으로서, 당시 전 세계에 거대한 상업망을 형성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를 누리던 소그드인들의 문화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화면의 오른쪽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소그드인들의 전통 복식인 흰색의 뾰족한 모자를 쓰고 허리에 끈을 묶은 긴 웃옷을 입은 남자가 오른손에 커다란 황금알을 들고 있으며, 그 옆에는 흰색 큰 거위와 황금알들이 그려져 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남자가 목이 힘없이 땅에 떨어진 거위의 두 다리를 잡고 칼로 배를 가르는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보는 사람이 애처로울 정도이다. 그리고 화면 왼쪽의 끝에 남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긁적이며, 자책 혹은 뉘우치는 것으로 짐작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그림①)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 판치켄트 궁전의 벽화에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 전해졌을까? 그 답은 역시나 본생담에 있다. 총 537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팔리어 자타카의 136번째 이야기는 '수완나 함사 자타카(Suvannahamsa Jataka, 황금 거위)' 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②. '스완나 함사 자타카' 를 그린 태국 방콕의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Wat Kruawan Worawiharn)사원 벽화. 태국 아유타야 왕국시기인 15세기경 조성됐다.

부처님께서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비구니 툴라난다에게 이 이야기를 설하셨다. 옛날 범여왕(브라아마다타)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느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다. 그는 성년이 돼 같은 바라문족의 처녀와 결혼했으며, 그 아내는 난다(기쁨), 난다 부티(기쁨의 충만), 순다리 난다(사랑스런 기쁨)라는 세 딸을 낳았다.

보살이 죽게 되자 그 아내는 세 딸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보살은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지(宿命智)를 갖춘 금빛 거위(혹은 금빛 청둥오리)로 환생했다. 보살 거위는 자라나며 금빛 털이 덮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였고, 화려하고 웅대한 제 몸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어디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을까?' 그러자 보살 거위는 곧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 내었다. 이후 아내와 세 딸이 남의 집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살 거위가 생각하기를 '내 몸을 덮고 있는 이 황금의 깃털은 얼마든지 새로 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나는 이 깃털을 하나씩 저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리라.' 보살 거위는 그들이 사는 집으로 날아가서 그 지붕의 들보 위에 앉았다. 거위를 보고 아내와 세 딸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 거위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였고 인간 세상에서 죽어 이 금빛 거위로 태어난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남의 고용살이로 힘든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황금 깃털을 너희들에게 하나씩 주면 너희들은 그것을 팔아 편하게 생활하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보살 거위는 매일 그들에게 황금 깃털을 하나씩을 빼주었고, 그의 아내와 딸들은 그것을 팔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딸들에게 말했다. "짐승의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 네 아버지도 언젠가는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그가 오면 그 깃털들을 모조리 뽑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자, 딸들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라고 어머니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탐욕이 많은 아내는 어느 날 금빛 거위가 왔을 때, 그를 두 손으로 붙잡아 깃털을 모조리 뽑아 버리고 말았다. 황금 거위는 깃털이 강제로 뽑혀서 날개를 펴서 도망갈 수 없었다. 아내는 그를 큰 항아리에 가두고 먹이를 주어 기르면서, 다시 또 황금 깃털이 돋아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그 후로 새로이 난 깃털은 모두 보통 거위의 흰 깃털이었다. 보살 거위는 날개가 돋자 둥지로 날아간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부처님은 툴라난다에게 "그때 그 부인이 지금의 너이고, 그 거위는 바로 나였다"고 말했다.

위의 본생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래전 전생에 황금 거위였을 때, 욕심 많은 아내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 거위의 황금 깃털을 모두 뽑아서 더 이상 황금 깃털이 돋아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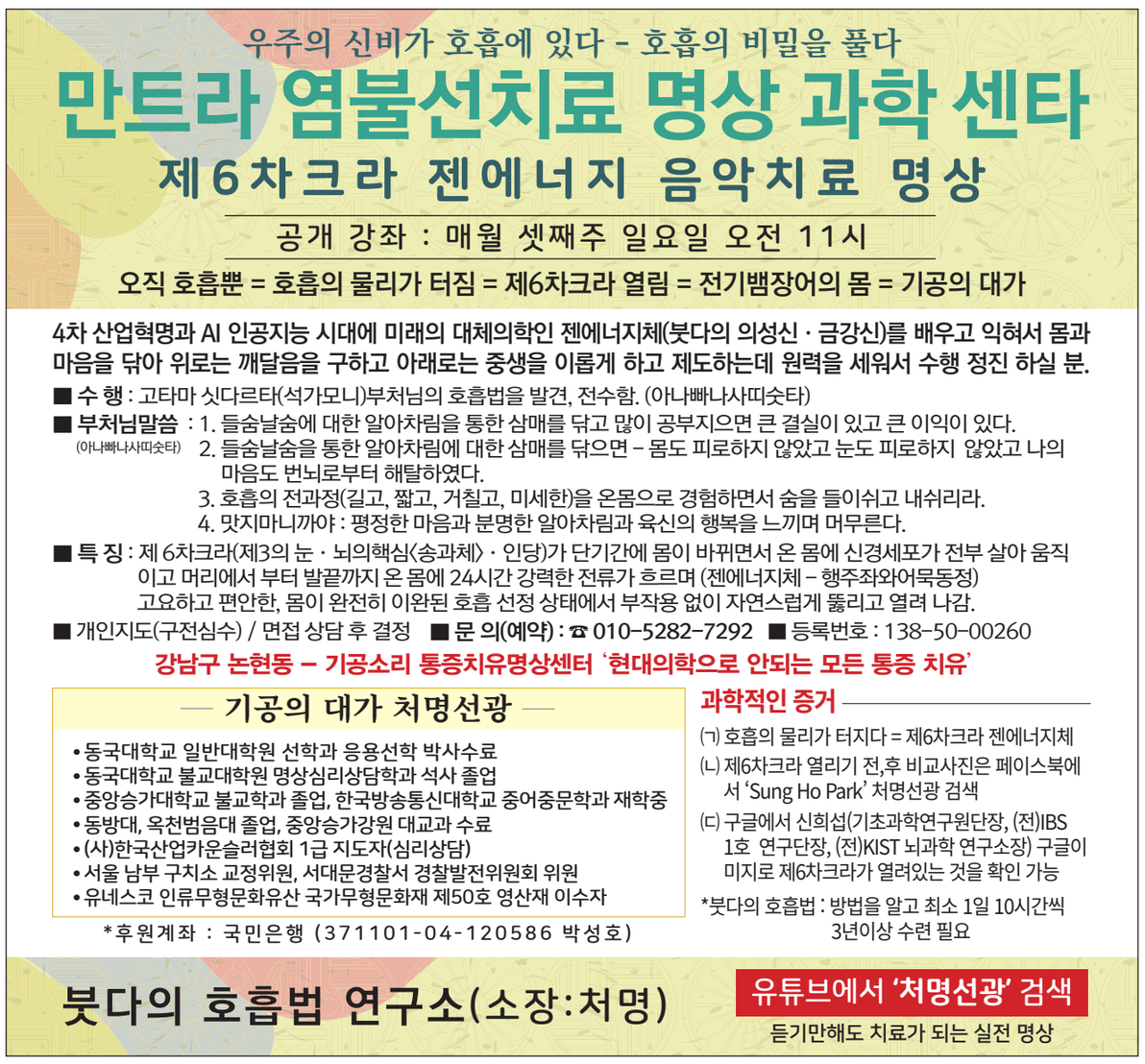
이 '스완나 함사 자타카' 가 그려진 그림을 남전불교의 전파로 팔리어 경전이 잘 남아있는 태국에서 찾을 수 있다. 방콕 시내의 왕실 사원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Wat Kruawan Worawiharn)' 벽면에는 황금색 새가 입에 황금 깃털을 물고 합장한 모자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남아있어, 보살 거위가 아내에게 깃털을 뽑아 주는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②)

이솝 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와 팔리어 경전 '수완나 함사 자타카' 는 황금알과 황금 깃털 그리고 농부와 전생의 아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황금 거위를 매개체로 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불교의 본생담에 그리고 유럽의 우화(寓話)에 들어가 있을까 궁금하다. 불교의 발생과 자타카의 성립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팔리어 경전의 '수완나 함사 자타카' 가 이솝 우화보다는 좀 더 일찍 성립돼, 실크로드라는 장대한 길을 따라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전해졌을 것이다.

인도와 유럽의 중간 경유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 선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동서 무역을 담당했던 소그드인들의 나라였다. 소그드 대상인의 궁전 판치켄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리고 태국의 사원에 '수완나 함사 자타카' 가 각각 도해되어 있는 것은 본생담의 전파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박원자의 母情佛心 27 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



▶ 한줄 요약
동봉 스님은 강원도 원주 산골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농부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스님은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고, 사법고시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방황하던 중 어머니와 찾은 구룡사서 법문을 듣고 감동해 출가하게 된다. 어머니도 출가를 아들에게 권유했다.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하거라."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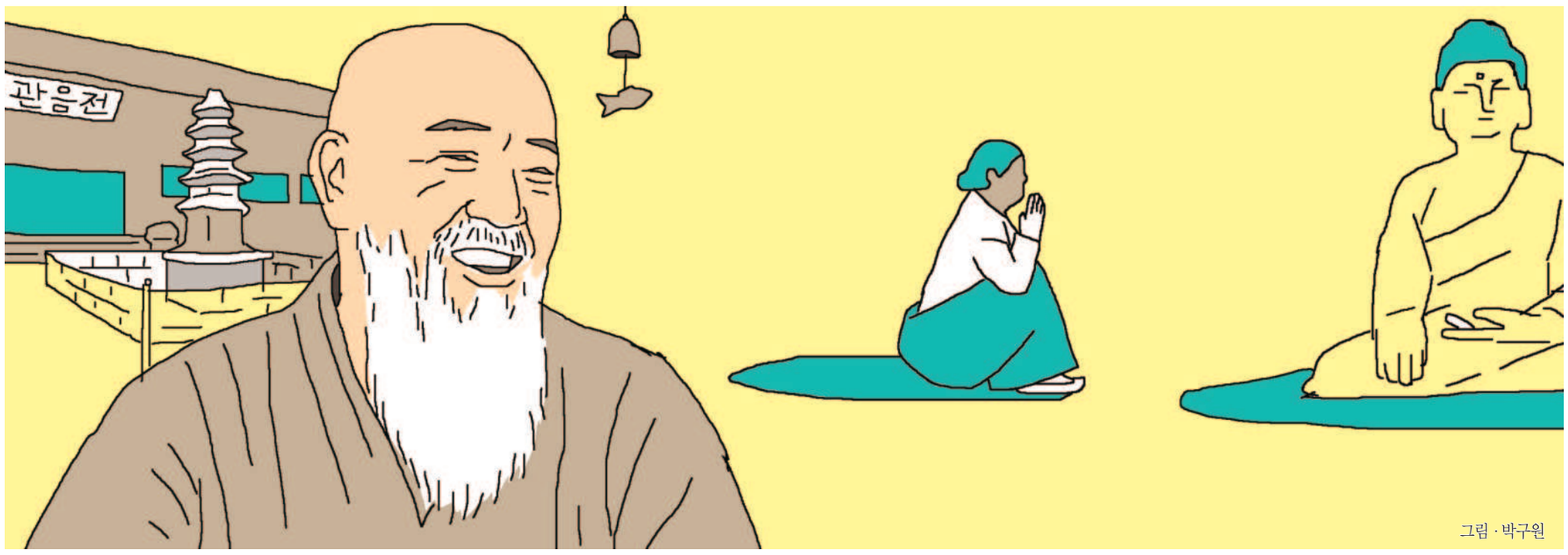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경기도 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은 불교계의 보기 드문 저술가다. 〈금강경〉〈천수경〉〈범망경 보살계본〉〈용성스님 어록〉 등 수십여 권의 경전을 번역 · 발간했다. 에세이집 〈마음을 비우고 차나 한 잔 들게〉와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 〈반야심경〉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글려준 오디오 에세이집 〈오디오 반야심경〉은 수 십 만 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남들이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할 때 방에 들어앉아 경전을 통독하며 글을 쓴 결과다. 스물넷에 출가해 일흔이 넘은 지금도 계속 경전을 번역하고 글을 쓰고 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 뿐이라는 게 변이지만, 어쨌든 천생 저술 수행자임에 틀림없다. 학교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가 전부라는데, 한문투성이의 경전을 어떻게 읽고 번역한 것일까.

아버지는 강원도 원주 산골에 집을 지어 아들 셋, 딸 하나를 데리고 이사를 했다. 학교가 왕복 60리 거리에 있어 자연스레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막내 여동생은 11살이 되어서야 동네에 생긴 분교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명석했던 둘째 아들은 서당에 보내고 막내아들에게는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열세 살에 농부가 되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 아들이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동네 어느 집에선가 책을 빌려다주셨다. 저녁으로 그것을 읽고 방에 두면, 아버지는 그게 남의 책인지 알면서도 책장을 뜯어 담배를 말아 피우셨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자식을 말리는 아버지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다. 작은 형이 이런 동생이 안 되어보였는지 일주일에 한번쯤 서당에 데리고 갔다. 〈명심보감〉을 배웠다. 3개월 만에 한문 원문과 해석본을 다 외웠다. 출중한 잠재력과 앞날을 꿰뚫어 본 듯 훈장님이 옥은(玉隱)이라는 호를 지어주며 말씀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옥이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그 뒤 〈동몽선습〉도 배웠다. 그러면서 한문에 문리를 틔웠다. 15살에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재건학교에 나가 목말랐던 배움에의 갈증을 달랬고, 17살이 되기 전 중고등 과정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내친 김에 사법고시를 준비해 도전했으나 낙방했다. 상심해 있던 23살 즈음이었다. 음력 2월 보름 열반재일이던 그날, 어머니께서 "오늘은 엄마하고 절에나 가자"고 하셨다. 어머니가 다니던 치악산 구룡사에 갔다. 절이라고는 처음 갔던 그날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열반이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다."

막연히 죽음이 열반이라고 알았던 청년에게 그 설법은 충격이었다. 동네 형들을 따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성경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그렇듯 멋진 말은 처음이었다. 불교를 깊이 좋아하게 된 순간이었다. 자식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 채는 존재가 어머니 아닌가. 어머니가 절에서 내려오며 무심히 말씀하셨다.

"어느 스님께 네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너는 얼마 못 산다고 하시더라."

"그래 얼마나 산대요?"

"서른아홉까지 산다더라."

마치 남의 말 하듯 담담히 얘기하는 어머니께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주팔자를 바꿔야지!"

어머니는 마치 오래 동안 이때를 기다려온 듯 간단하게 방법을 말해주었다. 절에서 불경을 빌려다주면 열심히 읽던 아들이었다. 토만 달린 한문 〈법화경〉을 술술 읽어 내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심 아들이 출가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식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을 늘 가슴 아파하던 어머니는 한문 잘 읽는 아들이 절에 들어가 맘껏 공부할 수 있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너는 아무래도 절에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여기 세상에 있어봐야 농투산이(농사꾼) 밖에 더 되겠니. 절에 다니며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니까 부처님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더구나.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하거라."

열반에 대한 신선한 얘기를 듣고 첫사랑처럼 불교를 좋아하게 된 차에 어머니의 그 말씀이 더해져 출가를 결정했다. 다음 날 집을 나와 열반에 대한 법문을 들었던 구룡사로 갔다.

"어머니는 한글을 겨우 깨친 분이셨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오히려 수행자인 저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이르셨어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로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마 제게 출가를 권하실 때도 인생을 관통하는 인연법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삶을

> **불교계 대표 저술가 동봉 스님**
> **원주 산골 빈농 아들로 태어나**
> **어렵게 학업…사법고시서 낙방**
> **방황하던 중 모친과 찾은 사찰**
> **법문에 감동…母, 출가 권유해**
> **"좋은 인연, 부처 시봉 잘해라"**

있는 그대로 보고 마음을 비운 분이었죠."

젊은 날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상처는 해인사에서 은사가 된 고암 스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꽃을 피웠다. 5개월 만에 구룡사를 떠나 해인사 용탑에서 친견한 고암 스님께서 물었다.

"한문은 좀 아느냐?"

"조금 배웠습니다."

당시 종정이며 용성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스님은 한문으로 된 〈용성어록〉을 내놓았다. 토만 달린 순 한문의 글이었다. 사흘 만에 그 책을 막힘없이 읽었는데, 고암 스님께서 용성 스님의 오도송에 대해서 묻고는 특출한 해독에 흡족해하셨다.

"너는 내 시중들 것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그 뒤 "참선하려면 이뭣고를 찾을 것이며, 경을 읽으려면 〈금강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려면 〈범망경 보살계본〉를 공부하거라. 그리고 출가자도 부모를 저버리면 안 되니 〈부모은중경〉을 항상 소중하게 여겨라' 는 말씀을 받들어 저 경전들을 번역 · 발간했다.

사미계를 받기 전, 어머니가 용탑에 오셨다. 큰스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행자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셨다.

"내가 너를 낳기를 잘했구나. 네가 부처님을 만났으니 잘 되었고, 큰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되었으니 참으로 좋은 인연이구나."

어머니가 54세, 아들이 24세 때였다.

"출가해서 때로 흔들릴 때 두 가지 일이 저를 다잡아 주었는데 하나는 정말 참 좋은 인연이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구룡사로 들어갈 때 기차역까지 바라다 주며 부처님 시봉 잘하라는 말씀을 하시곤 돌아서서 우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 보내주지 않는 게 미워서 칡넝쿨로 만든 새끼줄로 아버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만큼 미워한 분이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리며 힘을 내었죠."

스님은 출가수행자가 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10여 년 모시고 살았다. 지금의 곤지암 우리절을 짓고 절 다니기를 좋아하던 어머니를 모셔왔다. 83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의 하루 일상이 온통 기도였다. 하루 종일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하셨다. 잠자고 공양하는 시간 빼고는 온통 기도였다. 고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을 때도 3번, 7번, 21번, 108번으로 절을 늘려갔다. 결국 1년 동안 1080배를 빠짐없이 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렇게 수행자처럼 사시는 어머니께 아들 스님이 부처님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부처님 소중한 걸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스님께서도 부처님 시봉 잘 하시고 큰스님 되세요."

몸은 쇠락해져갔으나 부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셨던 신심으로 어머니의 마음의 세계는 늙지 않는 것 같았다. 늘 담담해보였다. 언제나 푸근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흔히 나이 들면 늘게 되는 푸념들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잠시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군 누구냐고 나 때문에 고생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시곤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180cm의 장신에 인물이 훤하셨던 아버지 곁에 늘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런데 그 한 마디로 맺힌 한이 눈 녹듯 사라지셨던지,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씀을 단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무심한 지아비에게 선물 한 번 받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 아들 스님이 여든셋 생신 때 금목걸이며 팔찌를 사드렸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일가친척들이 사는 고향에도 다녀왔다. 어머니는 다녀와 보름만에 세상을 떠났다. 새벽 3시, 법당에 올리던 다기물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침대 모서리에 앉은 채 돌아가셨다. 아들 스님은 49재를 지내며 뜨거운 사모곡을 올렸다.

"대개 들으니 염불 삼매에 들어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하면 살아생전에 아미타불과 세 분의 크신 보살님의 영접을 받아 바로 극락세계 상품상에 태어난다고 하던데 과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밤중까지 한 생각 흐트러짐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염불하셨으니 능히 앉으신 채로 돌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작가〉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원서교부 | 2022년 1월 부터
개 강 | 2022년 3월 2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 대령 · 관욕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2년 3월 10일 (목)
장 소 | 제천 금강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강의 "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① 화엄경 : 활안큰스님
② 대승불교사상 : 서무선 법사님
③ 절 요 : 혜림스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공덕과 선근, 정법섭수서 시작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⑧ 정법섭수

이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거듭 사뢰어 여쭈며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제가 지금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조복하고자 하는 큰 서원이 참으로 진실하여 틀림이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말을 들어보자."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갠지스강변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원도 정법을 거두어 들인다는 하나의 큰 서원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서원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지혜와 방편은 매우 깊고 미묘하다. 그대는 이미 기나긴 어둠의 긴 밤과 같은 세월에 선근을 많이 심었구나. 미래세의 중생들도 오랫동안 선근을 심은 자라면 능히 그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말하는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모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또한 당래에도 말씀할 것이다. 나도 이제 깨달음을 얻어 또한 정법을 거두어들일 것을 언제나 말한다. 이처럼 내가 정법을 거두어들일 것을 설하는 공덕은 끝이 없으니 여래의 지혜와 변재 또한 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공덕이야말로 크나큰 공덕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니라."

"제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넓고 큰 뜻을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보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뜻이 넓고 크다는 것은 곧 한량이 없다는 것이니 일체 모든 불법(佛法)을 얻어 8만4천 법문을 포섭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겁(劫)이 처음 이루어질 때 크나큰 구름이 일어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온갖 보배가 쏟아지는 것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도 한없는 복을 누리는 과보가 비 내리듯 내리고 한량없는 선근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겁이 처음 이루어질 때에 큰 물이 삼천대천세계와 4백억의 가지가지 종류의 육지를 생기게 하는 것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면 대승의 한량없는 세계와 일체 보살의 신통의 힘과 일체 세간의 안온하고 즐거운 것과 일체 세간의 뜻과 같이 자재한 것과 그리고 출세간의 안락을 내게 됩니다. 겁이 이루어지고 천상과 인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모두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데서 나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불교의 중요한 명제이다. 올바른 진리를 받아지니지 못하면 그야말로 사법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체 공덕과 선근이 정법을 섭수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여 정법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승의 근본 서원이 정법을 섭수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안락이 정법섭수에서 나온다고 밝히면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겁초(劫初)란 세상이 시작되던 시초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알 수 없는 초시간적 상황에서 시간적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최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개념으로 겁초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무(無)에서 유(有)가 출현하는 최초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장(章)은 승만 부인의 서원이 이 정법섭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승만경〉은 〈법화경〉이나 〈화엄경〉과 같이 대승을 선양하는 경전이다. 승만 부인의 서원이 모두 대승의 정신이다. 대승의 서원이 없으면 부처님의 정법이 될 수 없다는 논지다. 부처님의 참된 법은 성문이나 연각, 곧 이승(二乘)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 점은 〈법화경〉에서 5천 대중이 퇴각하는 장면이나 〈화엄경〉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화엄법문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 등과 같이 대승의 종지를 선양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 설해진 말들이라 할 수 있다. 〈승만경〉에서는 근본 교리인 사제(四諦)를 두고도 소승의 사제와 대승의 사제가 다르다고 말한다. 모두 부처님 법문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믿음 통해 얻는 견불·생천 공덕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㉛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덕

불자가 수행력이 부족할 때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 큰 믿음을 일으키는 실천을 통해 수행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믿음의 증과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이 아니지만 부처님을 친견하는 견불(見佛)이나, 내생의 극락왕생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생천(生天) 등의 공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견불(見佛)은 수행자가 생전이나 임종 시 혹은 사후에 부처를 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견불사상이 신앙적 목적과 결부되어 크게 강조되어 왔던 사상입니다.

〈반주삼매경〉에서는 "수행의 초심자나 하열한 근기의 수행자가 신행(信行)을 통해 현실에서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고 견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 '분별공덕품'에서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 수명이 장원(長遠)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곧 부처님께서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어 큰보살과 여러 성문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깊은 신심은 견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0권 화엄경〉에서도 "법답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염불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염불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한량없는 부처님 만나게 되리라."고 염불에 의해서 견불이 가능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신행 통해 현실에서 見佛
깊은 신심 공덕으로 生天

불자 여러분! 믿음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공덕으로 생천이 있습니다. 생천사상은 수행자가 일으키는 깊은 신심에 의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잡아함경〉 30권 〈천도경〉에 보면 "불, 법, 승, 계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고 믿음을 통해 생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잡아함경〉37권 〈邪行經〉에서는 "착한 업의 인(因), 착한 마음의 인, 착한 소견의 인은 몸이 허물어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세계 즉 천상에 태어난다."고 선업과 선심과 정견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아함경〉 〈自恐經〉에서도 다음과 같이 생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불법승 삼보를 잊지 않고 닦고 익혔기 때문에 목숨을 마친 뒤 그 몸은 불에 태워지더라도 마음은 오랫동안 바른 믿음으로 훈습되고, 계율(戒)·보시(施)·견문(聞)·지혜(慧)로 훈습되었기 때문에 그 신묘한 의식은 안락한 곳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 미래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고 바른 믿음의 훈습과 정법의 훈습은 천상에 태어남을 설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에서도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은 죽은 후 1천 부처님께서 손을 주어 두렵지 않게 해 주시고,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므로 죽은 후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계신 곳에 태어난다."고 생천을 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수행이 수행자의 마음에 훈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견불과 생천의 공덕은 비록 성불을 목적으로 한 상근기 수행자의 증과일 순 없지만, 초심자가 믿음을 통한 염불이나 칭명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덕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⑧ 오온(五蘊)은 내가 아니다

부처님께 이끌려 가면 돼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고귀한 님을 인정하고 고귀한 가르침을 잘 알고 고귀한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인정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린다. 그는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는 정신활동을 기울여야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모든 번뇌의 경〉

'고귀한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린다'는 이 쉬운 문장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이끌림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이며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님께 이끌리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를 묶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완전한 가르침에 이끌려가면서는 내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온(五蘊)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온은 고귀한 가르침에 이끌리기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저항한다. 에덴동산에 머물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처럼, 오온은 내면의 소리로 분별을 일으킨다. 우리는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고, 간교한 오온의 속삭임을 너무나 쉽게 긍정해 버린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많이 공부했잖아, 내가 더 나이가 많잖아' 거부할 길 없이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 친밀한 적의 이간질에 '맞아 맞아' 맞장구까지 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 뱀의 소리를 뱀의 소리로 듣지 못한다.

오온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라. 오온의 속삭임은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분별을 일으킨다.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인 오온은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있는지를 보라. 스스로인가, 뱀인가? 오온은 생각을 주도하기에, 생각이 없으면 죽는다고 느낀다. '생각 좀 하고 살아' 하고 속삭인다. 오온은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정신을 바르게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가볍고, 그냥 편안하다. 고집함이 없어 무거움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온은 이유 없는 포기가 없다. 포기할 때조차 이유를 대면서 집착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집착다발이라고 한다.

스스로는 '그냥'이다. 이런 말을 해도 옳고, 저런 말을 해도 옳다. 그러나 몸이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해두면 그냥 듣지 못한다. 정해둔 말이 아닌 말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요동이 일어난다. 어떠한 소리, 어떠한 반응이 있어도 이것이 조건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 요동은 그친다. 오온이 아닌 스스로는, 조건에 대해서 그냥 놓아버린다. 그냥 할 뿐이다.

들어야할 것 하나도 없는데 귀만 쫑긋하지 듣고 싶은 마음 없어라.
만나서 절 한자리 바르게 하면 되는데 다시 혀를 놀려 절값을 챙기지 못하네.
이렇게 다 보여도 믿지 못하는데,
말을 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절하고 말 하려는 그것을 얼른 알면 나도 수고롭지 않고
저도 수고롭지 않는데
입을 열어 저도 수고롭고 나도 수고롭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나도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에게 다시 물어 알려주어야 할 판,
되물어보면 눈만 깜박거리니
속 타는 마음 어찌할까!
주지 못하는 내가 더 답답하니
이렇게 시원할 수가
더위에 냉수 한 사발 참으로 시원하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3월 8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7호 | 17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010-4435-5660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양구 흥덕사

010-5049-1533

불자가 운영하는 '아라리냠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한 곤드레부각, 곰취부각, 깨잎부각, 고추부각과 도라지, 곰취, 현미, 17곡, 강황누룽지칩 오란다등 다양하게 수제로 만듭니다.

코로나로 많이어렵습니다.
큰스님, 불자님 꼭 한번주문해주세요(1봉지5천원)

문의전화 : 010-8844-8245 청정행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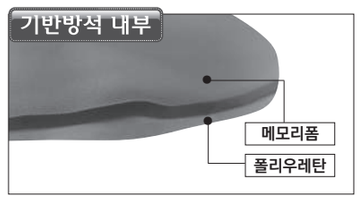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7호 | 18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9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2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관벨설치, 음향완비, 도배)
- 5년전 인수금액보다 3백만 절상

보문산 약사도량 지장사

010-3049-581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 5천 조정 조금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171)대웅사
- 토지 : 5,824평(종교용지 : 1,690평, 산168-2 : 4,134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할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 절충가)

010-4225-0012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 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550만원, 월세 30만원
- **비구니스님 환영**

010-3132-966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 구명지하철역 5분거리
- 3층 / 48평, 엘리베이터, 법당, 방2, 주방, 삼존불, 주차장
- 보증금3천 / 시설비1천(절충가능) / 월세75만
-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

010-8551-4360

멋진 법당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멋진 법당
- 상가 2층 60평(시설완비) 방2, 주방, 화장실3
- 넓은 옥상, 방음완비
- 민원없고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 (급) 안 내

- 종교부지 760평 계획관리. 대재 240평
- 감곡 장호원 KT역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종각, 요사채, 휴게실, 찜질방2, 연못, 잔디정원, 요사3동, 산신각, 차고40대, 대형해수관세음보살, 5층석탑, 진사리탑
- 친견하시고 상담하세요
- 매매상담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2883-2255
010-5223-3705

사 찰 터 안내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 산 1,6000 평, 평당 1십만원
- 산 밑에 대지가 있는데 그곳도 별도로 금액은 상담후 양수가능 합니다.
-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산에 돌이 많고 경치가 좋습니다
- 자세한것은 문의전화 바랍니다

010-4204-1060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 2백만, 월세 20만 권리금 3백만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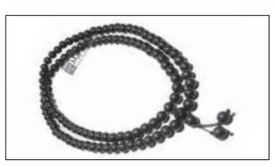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④ 4가지 나쁜 요소

한 잔의 약차가 보약

먼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4가지 나쁜 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 잔의 약차가 내 몸의 노화를 억제하고 건강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텔로미어(TELOMERE)'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2009년 노벨의학상 수상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결과 덕분에 노화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

우리 몸 안의 세포의 핵에는 23쌍(46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 모양은 소시지 2개가 나란히 붙은 것처럼 생긴 염색체들이 길게 이어진 DNA모습이 긴 실타래와 같이 칭칭 감겨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염색체로 구성된 DNA는 성별이나 피부 · 머리카락 · 새끼발가락의 모양과 길이까지 우리 몸의 세부적인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DNA의 일종인 텔레그럼 텔로미어를 병들어가게 하는 주범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일상의 음식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텔레미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를 병들게 하 늙음, 병듦, 죽음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산화, 두 번째 염증, 세 번째 당화반응, 네 번째 비정상 메틸화이다. 이 4가지 요소로 인해 우리는 노화로 인해 병들어 죽음을 맞이한다.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산화'는 프리 래디컬(Free Radical)에 의해 일어난다. 프리 래디컬은 불안정하게 들떠 있는 분자를 말한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광란자와 같이 몸의 혈관 속을 마음대로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포들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DNA와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까지 훼방을 놓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프리 래디컬에게 공격받은 혈액과 DNA세포가 또 다른 분자와 DNA의 정상세포기능까지 훼방을 놓아 마비시킨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산화스트레스라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각종 암과 퇴행성질환을 만들어준다. 이 부위의 손상은 노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비타민 C, E 등 미량의 원소와 다양한 계절 약차들은 항산화물질과 식품을 섭취하면 항산화 항노화제 안티에이징(anti-aging)의 역할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염증(infection)'이다. 관절염 · 편도선염 · 피부염처럼 눈에 크게 띠는 염증도 있지만 체내에서 조용히 만성적으로 조용히 활동하며 다양한 병들을 일으키는 염증도 있다. 심장병 · 혈관질환 · 알츠하이머 · 당뇨 · 암 등으로 종류도 다양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게 유발, 진행된다. 심장전문의들이 말한 관상동맥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인다했다. 그러나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된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 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성염증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독성폐기물이 만들어진다. 당뇨병의 일종인 제2당뇨병도 마찬가지이다. 혈관염증이 일어나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당화반응(glycation)이다. 당화반응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섭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빵 · 샐러드 · 음료수 · 탄산음료 · 드레싱 · 과일주스 · 라떼 · 아이스크림 · 커피시럽 · 케첩 · 케이크 · 머스터드 · 피자 · 햄 등의 음식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파괴시키며, 당화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은 바로 당분이다. 과도한 당분이 인체에 들어오면 화학반응을 거쳐 당화반응을 일으킨다. 당화반응은 당분자간 단백질이나 지방 분자에 달라붙는 화학반응이 세포막의 탄력을 떨어트리며 심한 경우에는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을 죽게 만든다. 당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당화반응 최종산물이라는 물질이 형성된다.

이 물질은 온몸에 누적되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모든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킨다. 음료수가 몇 방울만 테이블 위에 떨어져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금방 끈적거린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혈관에 들어가 혈관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 물질은 혈소판 덩어리로 뭉쳐 혈소판은 혈관을 좁혀 고혈압 · 혈관질환 ·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네 번째는 비정상 메틸화(abnormal methylation)이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메틸화는 메틸기(Methy group, 탄소 원자1개와 수소원자3개의 결합물질)가 다른 분자들과 결합하는 화학반응 방식으로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 유해한 내 몸속의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내 몸의 장기인 간 기능의 내부에서 발생된 독소를 배출시켜주므로 정상적 두뇌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메틸화는 첫 번째 노화의 원인인 산화를 막아 텔로미어의 생명의 길이를 연장해 준다. 하지만 메틸화가 비정상적으로 이어지면 여성에게 많은 자궁경부암 · 대장암 · 심장마비 · 아테롬성 동맥경화 · 뇌졸중 · 알츠하이머병 등을 유발한다. 안타깝게도 서양 사람들의 10~44%가 비정상 메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의 메틸화가 아닌 몸에 이로운 정상메틸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따뜻한 건강약차나 보이차 등을 꾸준히 마시면 메틸화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처럼 100° C 물을 끓여서 따뜻한 차를 지속적으로 우려마시는 방법으로 혈관의 염증과 혈관 속 노폐물의 쌓임을 예방하는 차, 필자가 한방차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만든 이유가 한국인의 텔로미어를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④ 산소와 소금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한 '미네랄소금'

왜 숨을 쉴까?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쉰다. 잠시라도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고 조금 더 지체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일이다. 공기는 어떤 성분이 있길래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아주 다르다.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산소가 아니라 질소라는 성분이다. 전체 공기의 무려 78%를 차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는 21%를 차지한다. 질소와 산소, 이 두 가지 기체가 전체 공기의 99%를 차지한다. 나머지 1%를 여러 가지 기체가 차지하고 있다. 아르곤이라는 생소한 기체가 0.9%, 우리가 그토록 많아질까 걱정하며 전 세계가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산화탄소는 0.03%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실상이다. 이들 기체를 호흡을 통해 흡수하고 몸에서 사용하고 배출을 하는 것이 숨을 쉬는 과정이다.

그렇게 숨을 통해 흡수한 산소는 폐를 거쳐 혈액을 통해 세포에 이르고 세포에서 탄소 등과 만나 이산화탄소화가 되어서 다시 혈액을 타고 폐를 통해 배출된다. 이 이산화탄소는 식물에 흡수되어서 영양물질이 되고 음식이 되어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고 산소와 만나 이산화탄소로 다시 배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호흡작용이고 생명순환의 흐름이다.

우리가 공기 중에 가장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 산소는 21%에 불과하고 무척이나 많을 것 같았던 이산화탄소는 0.03%에 불과하다. 질소라는 기체는 무려 78%를 차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숨을 쉬는 진짜 이유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이다. 이 같은 반복활동을 통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일이 바로 '호흡'이다.

바닷물 속 미네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바닷물을 그대로 졸이면 소금 결정체가 되는데 염화나트륨이 78% 정도 된다. 공기 중에서 질소가 차지하는 양과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나머지 22%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황, 아연, 리튬, 요오드 등 80여 가지 미네랄이 차지한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산소를 마시기 위함이다.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질소를 마시기 위함은 아니다. 물론 질소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하다. 질소의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이다. 산소를 마시기 위해 우리는 호흡을 한다.

그럼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금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나트륨을 먹기 위함일까 아니면, 소금 속에 포함된 칼슘, 마그네슘, 칼륨, 황 같은 80여 가지 미네랄을 먹기 위함일까? 이들 모두는 단 하나라도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어느 것 하나 없어도 생명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음식에 이들 미네랄이 조금씩 들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트륨도 동물의 고기 속에는 어느 정도 들어 있다. 이들 덕분에 미네랄이 부족한 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먹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온전한 소금,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소금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삶과 건강의 질은 월등하게 달라질 것이다.



소금을 먹기 위해 벼랑을 오르내리는 산양.

미네랄 보존된 소금류 먹어야
바닷물 미네랄 생명유지 원천
미네랄, 공기 중 산소와 같아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소금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매일 매순간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숨겨진 산소의 비밀, 바닷물이 간직한 미네랄의 비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풀어가는 열쇠들이다. 바닷물이 간직한 수많은 미네랄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촌 생명체들이 온전한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우주 자연이 안겨준 소중한 선물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세포가 호흡한다.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먹고 배출을 한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살아 움직인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작용에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이다. 그 절대적인 생명 활동에 있어서 산소가 중요한 것처럼 소금 속의 수많은 미네랄이 중요하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삼라만상에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금에서 간수를 뺀다는 이름으로 제거하는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가 먹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다. 간수는 쓴맛이 나는 미네랄 집합체이다. 그 쓴맛은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가진 맛이다. 쓰다는 이유로 빼버리고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비싸게 사 먹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그 마그네슘이 살아 있으면서도 쓰지 않은 소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쓰지 않은 좋은 약도 많은 것처럼 미네랄 풍부한 좋은 소금도 많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 늘 먹어온 소금, 숨 쉬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주)오씨아드 이사〉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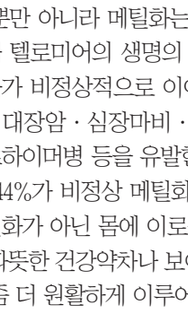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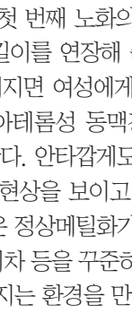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 향 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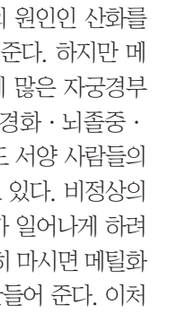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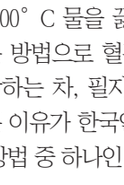
식물성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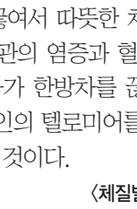
육각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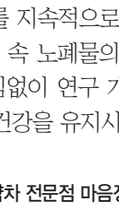
연꽃칠성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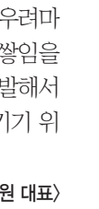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 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❷ 셀프컴패션



▶한줄요약
자기친절 속에서 진정한 역량발휘가나온다.

셀프 컴패션…'친절' '받아들임' '마음챙김'

〈Self-Compassion〉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리더스 웨이'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티베트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티베트인들의 믿음이 어찌나 강한지 나도 놀랄 정도이다. 수많은 티베티인들이 티베트 바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믿음과 쾌활함을 잃지 않고 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을 때 리더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되도록 신중해야 한다."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른 믿음' 이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하고 무한한 힘을 준다.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바른 믿음이란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티베트인 자신들에 대한 믿음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태양과 같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 잠재력은 바로 모든 인간의 온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을 뿐 태양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된다. 자신의 온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낸다. 찬란한 태양을 마주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함께 한다. 성철 스님께서 백일 법문에서 "수행은 자기 호주머니 속에 이미 있는 보석을 찾는 일"이라고 한 말씀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자신의 태양을 맞이하려면 밖으로만 치닫는 마음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가만히 살피고 돌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 자신의 온전성을 신뢰하기는커녕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남에게는 기꺼이 친절을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일이 잘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자기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등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익숙함을 넘어서 자동화(autopilot)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자기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이다. 만약 손가락이 베이면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약을 바르고, 밴드나 붕대로 보호하면서 치료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상처가 나면 따뜻한 주의로 돌보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친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고 한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배가 된다. 먼저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 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반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가혹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 언젠가 힘들고 지쳐서 상처만 입고 쓰러지기 십상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셀프 컴패션 (Self-Compassion)' 다. 셀프컴패션은 새롭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셀프 컴패션이며 행복의 근본이다.

자기 비난은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가치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친절이다. 자기 친절이 없으면 내적 자원이 빨리 소진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온전히 발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내면의 태양이 어둠 속에 갇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때 발휘되어야 할 핵심 덕목이 바로 셀프 컴패션이다.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소중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친절할 때 숨겨진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다. 따스하고 친절한 마음씨는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없다. 항상 조그만 부분이라도 자신을 칭찬해주고, 과거의 잘못도 흔쾌히 용서해주고,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간단한 실습을 해보자. 먼저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다음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본다.

"당신의 친한 친구가 어떤 불행이나 실패, 부적절한 상황 등으로 괴로워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그런 상황에 처한 친구를 보통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말을 해주는가? 말할 때 어떤 어조를 사용하는가? 말할 때 자세는 어떠한지도 생각해보라."

마음의 상처 보듬는
스스로의 노력 필요
고통받는 사실을 직시
자기친절로 극복해야

그동안 친구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종이에 있는 그대로 적어보기 바란다. 이제 상황을 바꾸어 보자.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순간들, 불행, 실패, 괴로움 또는 수치스러웠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라.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가? 자세는 어떠한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왔는지 가감 없이 적어본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대응과 자신에 대한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이 질문은 MSC 프로그램 1회차에 나오는 핵심 실습이다. MSC 프로그램 개발자인 크리스틴 네프(Kristin Neff)가 그의 동료와 진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78%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에게 더 친절했던 사람은 겨우 6%에 불과했다. 나머지 16%는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비슷비슷하게 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이다. 셀프 컴패션은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친구를 대하듯 자신에게도 똑같이 친절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나 가족을 대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셀프 컴패션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지치고 힘들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신에 대한 친절의 햇빛이 고통의 눈물과 만나면 연민의 무지개가 피어난다. 연민의 무지개가 피어날 때 자신에게 내재된 지혜와 능력이 무지갯빛으로 뿜어져 나온다. 셀프 컴패션은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토양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숨겨진 능력이고, 본인 스스로가 억누르고 있는 능력이다.

크리스틴 네프에 의하면 셀프 컴패션에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 자기 판단이나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친절이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만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행복의 시작이다. 셀프 컴패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애정을 갖는 친구를 대하듯 친절, 돌봄, 이해, 지지로 자신을 대할 수 있다.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자신과의 공감을 시도하는 셀프 컴패션은 고통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고통의 완화를 위해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 고통스러울 때 적극적으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것과 힘겨울 때 나에게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고통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삶의 조건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셀프 컴패션과 함께할 때,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인간 실존의 보편성을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한다.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아프다. 이러한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자각할 때 혼자라거나 고립됐다는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괴롭고 걱정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통찰. 간단히 말하면 나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 이것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셋째, 셀프 컴패션은 마음챙김과 함께한다.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음챙김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느낌에 주의를 향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과 함께하도록 한다. 마음챙김이란 균형을 유지하는 자각의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중도(中道)의 방식을 일컫는다. 셀프 컴패션은 내가 가진 고통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든 연인이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는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에게 맞추어간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셀프 컴패션의 또 다른 표현은 이른바 '사랑에 연결된 현존'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챙김을 통한 자각은 우리가 언제 고통 속에 있는지, 언제 스스로를 비난하는지, 언제 고립을 자초하는지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제시해준다.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셀프 컴패션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힘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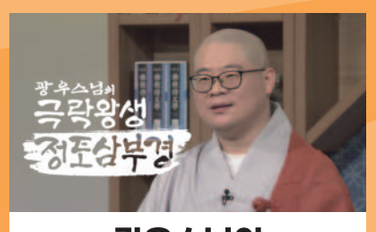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법구경〉 157편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의 세 때 중 한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지면이지만 부드러운 태도로 아래 내용을 3번씩 소리내어 읽어보자.

"스스로 미워한 자신을 용서하기를"
"누군가를 미워한 자신을 용서하기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번민에서 자유롭기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롭기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늘 깨어 있기를"

반복할수록 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나타날 것이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불기 2566년
개편프로그램안내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우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매주 (월, 화, 수) 07: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매주 (월) 09:30, 21:30 / (화) 23:2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매주 (월, 화, 수) 19:30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매주 (목, 금, 토) 08:30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6:00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매주 (목, 금, 토) 19: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77 호 현대불교
2022년 3월 2일(음 1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내가 공한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길러라

왜 내 맘이 내 맘대로 안 될까요

질문 다들 "마음, 마음" 하는데 대체 마음이 무엇인지요. 알 듯 알 듯 모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답변 이렇게 수많은 나날을 마음에 대해서 수만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만 가지 말을 했어도 말한 사이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여직껏 마음을 쓰시고 살았는데 "마음 쓰신 것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아무리 써도 줄지도 않고, 아무리 써도 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쓸 때 되면 불쑥불쑥 다 나오니깐 말입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렇게 소중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광대무변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끔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쓰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략해서 말하자면 "소를 한 마리 죽였어도 살생이 되지 않느니라." 이런 거하고 "요만한 벌레 하나를 죽였는데도 살생이 되느니라." 이 두 가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봤기 때문에 그 영혼,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한데 합쳐지고, 그 살은 고기로다가, 약으로다가 모두 먹였단 말입니다.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밥도 약이요, 반찬도 약이요, 약도 약이요, 전부 약이지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 앞에는, 이 마음 공부 하는 사람 앞에는, 무슨 그냥 아무 때나 죽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죽일 때, 그 소도 건지고 사람도 건지고, 양면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수만 개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인 사이가 없다.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태어났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개를 기르는데 여러분 마음이 개의 마음하고 같이 하나가 됐다면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불종자에서 바로 환생이 되는 거…, 꽃이 피는 거와 같이. 연꽃 피는 거와 같이. 그래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다.

연등부처가 부처님한테 "너는 이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땐 석가모니로 태어나거라. 이름을 하라." 이런 것도 자기 연등부처가 자기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다는 격입니다. 수기를 내린 분도 없고 수기를 받은 분도 없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진짜로 이 생명체가 모두 불쌍한 줄 아신다면 이 도리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이구' 하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그 영혼의 마음이 벌써 하나가 돼 버려요. 하나가 되고 그 물체는 그냥 어딘가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만 없어지는 줄 아시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만 태어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력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력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이 마음 자체는 어떠한 짜증이 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부질없는 용도로써 내 앞에 닥치고, 어떠한 게 망하고 흥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그러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 놓고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심부름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거를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이러죠. 내 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믿고 거기다 놔 버려야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는 거죠. 본래 자기 뿌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아 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해도 그것이 그냥 재깍 통신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뿌리하고 나하곤 항상 통신이 되니깐 말입니다. 뿌리와 뿌리끼리 또 통신이 되고, 용신도 또 주산신도 모두, 보살들 부처님들 다 통신이 되니깐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움죽거리는 게 용입니다, 용! 우리 마음이 움죽거리면 용이에요. 몸이 움죽거리면 바로 보신이자 화신이죠. 그게 행이죠. 즉 말하자면 공용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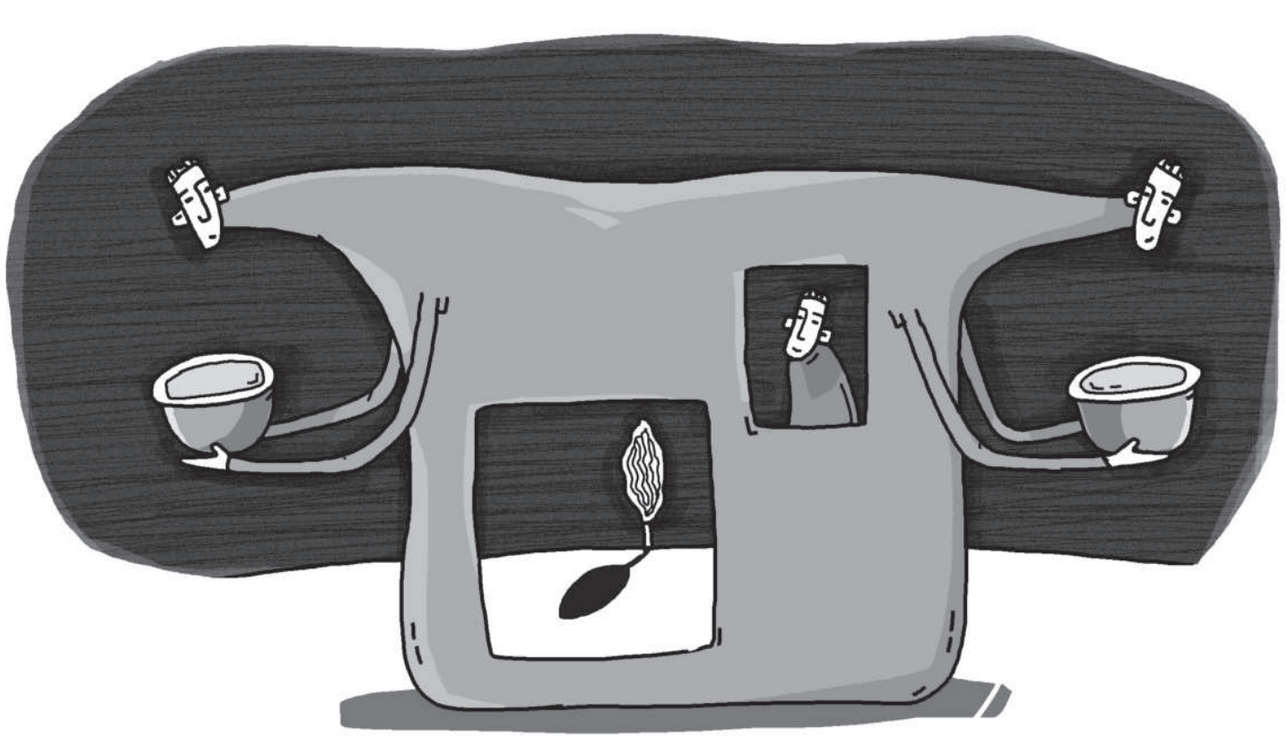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는 항상 육체 속에도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의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 씁니다. 그걸 같이하지 않는다면 바로 악과 선이, 즉 말하자면 이 양면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생명들이 이거는 아군이다 적군이다, 아이, 이게 생겨 가지고 말입니다, 싸움들을 하다가 만약에 아군이 이기든 적군이 이기든 간에, 이기면은 그냥 살이 굳어지거든요. 생명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나쁜 악신이다, 선신이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악한 것이 나한테 왔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선신 따로 찾고 악신 따로 물리치고 이러지 마시고, 모든 게 한 생각에 악신도 선신이 되고, 선신도 악신이 되는 겁니다, 한 생각 차이에. 선신은 선신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신도 악신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집에 강도 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무슨 부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난해서 사람 죽일 필요도 없더랍니다, 너무 찾아봐도 없어서. 그래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가만히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울면서 하는 소리, 혼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낼 너희들 차비도 없으니 어떻게 학교를 가느냐. 쌀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굶겨 보내느냐."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걸 보고 그냥 훔쳐 가지고 왔던 거를 거기다 도로 놓고 그 사람네들한테 주고 돌아섰답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때에 따라서는 선신이 되는 겁니다. 선신도 때에 따라서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런 겁니다.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놔라. 놓는 그 가운데서 미묘한 바로 참마음이 생기느니라. 그게 바로 평등공법이며 그것이 바로 법신의 정신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아이구,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말걸 또 이렇게 썼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이건 그릇된 일이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썼든 못 썼든 다 거기에다가 그냥 일임해서 놓으세요, 그냥 여여하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어떠한 게 닥쳐도 끄떡없이 가다가 그냥 그게 다 풀려서 "스님, 정말이지 이렇게 놀라운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어떻게 이 은혜를, 죽어도 못 갚고 살아도 못 갚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옳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 줘서만, 나의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쪽에도 반, 이쪽에도 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뛰는 것이 애석해서 아이,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그저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겼으면 '언짢은 일이 생긴 것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놓고 그냥 다 놓으라고, 그러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방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해요. 그냥 방방 뛰어요, 그냥. 그놈의 걸 붙잡고 늘어지니 슬며시 풀릴 수가 있나요? 옭매듭 쥔 거를 놓지 않고 쥐고 있으면 그 옭매듭이 풀려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딱할 때가 많아요. 나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땐 왜 그럭하라니깐 그러냐고 악도 쓸 때가 있어요. 대신 내가 해 줘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

☞ 22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심안의 내 선장의 주장자를 딱 쥐어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나도 같이 해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서 열질 않고 몰라라 한다면 나도 몰라라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면 나도 거기 같이 해지죠.

내가 옛날에 말했듯 임제 스님이 어떠한 선승한테 묻기를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오히려 뺏어올 것이니라." 제가 제 주인을 챙기지 못하니까 집은 항상 비어서 벌레가 끼고, 그냥 오고 가는 행인들이든 벌레든 할 거 없이 빈집이니깐 들어와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니까 그 집은 망가지게 돼 있죠.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의 그 마음도 망가진 마음 그대로, 차원이 아주 낮은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다음에 태어날 때도 또 그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 스님이 저 말로만 저러지.' 그러지만, 이것을 당해 보고, 그렇게 해 보고 그렇게 모든 거를 본다면 아마 그렇게 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고 보고…. 그런데 옛날에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한 거 말입니다. 왜 잣나무만 부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어느 거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고, 그네들에게는 우리가 스승이고 서로서로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모르면, 차원이 낮으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모습도 이 세상에 나오고 모든 모습이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려면

질문 일체를 둘로 보지 말라 하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조차도 한마음이 안 되는데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무조건 믿는 거, 못났든 잘났든 무조건 자기를 믿는 거, 내가 조금 믿다가 부딪치면 '이거 뭐, 이렇게 찾아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벌렁 나자빠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지금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못 믿는 겁니까? 잘되기만 하면 좋다고 '주인공, 주인공' 하다가 안 되면 '아이, 주인공 찾아도 뭐, 만날 마찬가진데….' 이런단 말입니다. 하하하. 안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다.

공부할 때에 자기가 자기한테 뭐, 테스트해 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알기 위해서 그 용도에 적합하게 오는 것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럴 때는 '아하, 요것도 그놈이 또 이거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냥 재깍 그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요런 게 또 왔으니 이거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하나. 주인공을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안 돼.' 하고는 그냥 물러서 버리니 아이구, 이거 정말이지 허구장천 "못났든 잘났든 널 믿어라, 널 믿어라. 죽는 것도 거기고 사는 것도 거기다." 이래도 그렇게 안 들어가나 보죠? 그러니까 한 발짝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화살을 쏘려면 정의 화살을 쏴야 될 텐데, 여기 쐈다 저기 쐈다 이러니까 이게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금방 죽는대도 '흥, 네가 끌고 다니는 네 몸뚱이 죽인다 해서 내가 외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그냥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놔 버린다면 되는 건데, 그렇게들 그냥 모두 작척(作隻)을 하고 붙들고 늘어지니 글쎄, 그놈의 게, 그게 인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게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게 모두가 인과가 되는 거라구요, 오히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려면 아예 그냥 놓고, 이렇게 줄을 잡고 그냥 툭툭…, 딴 데로 가면 툭, 딴 데로 삐뚤어지게 가면은 툭, 이렇게 마음의 줄로다가 잡아야 마음이 잡히지 아, 이건 실질적으로 실체를 말로다가 잡으려고 그러니 그게 몸이 잡아집니까, 네?

마음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설이 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방에도 전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스위치만 누르니까 죄 불이 들어오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내 한 식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 밝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밝게 켤 줄을 모르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법이니까 양면의,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다 놓아서 같이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런 게 와도 거기 놓고, 저런 게 와도 거기 놓고 하면서 그 중심의 중용을 잘하면 그게 굴림이죠. 그게 수레공법이에요.

사람이 머리로만 한다면 그 진실한 마음이 전신으로 하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그 권처(權處)에서 바로 두뇌로 올라가는 게 누진입니다. 누진으로써 몸뚱이 사대(四大)에 하달을 해서 바깥으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심성 과학. 종합 심성 과학입니다, 이게. 모두가. 얼른 쉽게 말하자면, 참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캠핑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못 하면 후일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말리고, 나만 말리면 좋은데 또…. 내가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위로는 묵은 빚을 갚으며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나 내가 못 한다면 위로 묵은 빚도 갚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묵은 뿌리의 그 썩은 것도 자를 수 없고 아래 자녀들의 그 뿌리가 싱싱하게끔 도와줄 수도 없다 이겁니다. 내 뿌리가 썩었는데 남의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묵은 빚도 갚고 햇빛도 줄 뿐 아니라 스스로 세세생생에 권도(權道)를 가지고 여래장이 돼서 참, 수레공법이나 평등공법이나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주인공에다가 놓고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 **자기가 사는 게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 **심부름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일에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실제로 우주를 볼 수 있나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 생각으로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의 모습을 다 볼 수도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시라고 이끌어 드리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실천을 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 자(子), 나가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그거를 잡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각계각층 가지각색의 모든 종류를 같이 이렇게 응(應)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안으로 봐야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심안으로 봐야 하고, 심안의 귀로 들어야 하고, 심안의 신족통, 즉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는 사이가 없이 알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안의 내 선장의 주장자를 딱 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둥을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심안의 기둥은 하늘과 진리가 상통이 돼 있고 세상과 모두가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 않는다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50% 반쪽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100%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네 나무에서 꽃이 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또한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공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공생(共生)이면서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이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다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한 줄 알고, 겸손해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력을 길러라 이거지,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고 경이나 읽고 이론이나 캐고 이러려면 뭣 하러 여기 이렇게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각양각색의 종교가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외국에 다니면서도 보았는데,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자의에서, 제 뿌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꼭 이름, 형상, 이런 걸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줄, 그 줄을 바로 반야줄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이 반야줄을 잡지 못한다면, 깜깜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 나와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내가 아무리 방방방방 뛰어도 그 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그 내면세계를 꼭 믿고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나고 드는 생사가 한 구멍밖에 없어서 그 구멍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그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하라' 합니다. 그런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현실에 자꾸 입력이 되면 그것이 새롭게 모두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미타경 말씀 중에 이런 게…

질문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를 만나게 되면은 동방을 비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변 동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귀신 방귀씨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이 내가 부와 자가 상봉을 하게 되면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보면 보는 대로 시가 읊어지고 들으면 듣는 대로 시가 읊어지고 그러는 거지마는, 그거를 머리로써 고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내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방귀씨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안다 하더라도 그저 안다는 것도 거기다 놓고,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거는 나중에 깨달아서 써먹게 하고, 그것조차도 모든 걸 거기다 놔야 합니다. 거기 맡기고 '알아도 네가 알지, 나는 관리인이요 시자일 뿐이야.' 하고선 거기다 다 놔 버리세요. 몽땅, 하나도 없이, 나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놨을 때에,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소리가 그게 진짜로 법이 되고 진짜로 다가 그게 그대로 한데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기 위해서 한 번 죽어야 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더불어 죽어야 하고, 또는 더불어 나투기 위해서 세 번 죽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아, 내가 이렇게 아는 것조차도 그 주인공,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내 자성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대로 심봉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맷돌과 같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바로 거기다가 자꾸 되넣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갈려 나올 테니까요. 그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한 일 년만 그 작업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모든 거 거기다 놓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

| 현불 논단 |

호랑이처럼 바라보라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부처님, 코끼리 · 사자에 비견해
특히 코끼리는 수행 표본 비유
동아시아선 호랑이가 금수제왕

위인들의 형상 호랑이로 표현해
마조 묘사한 '牛行虎視' 대표적
中선사 관련한 호랑이 지명 많아

제왕 풍모 가진 호랑이 기운받아
한국 승가도 높은 기상을 펼치길

불상이 등장했던 시기는 대략 기원 1세기로 본다.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불상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무불상시대' 라고 하는데, 500년이라고 추산한다. 그렇다면 무불상 시대에는 무엇으로 부처님 대신 예배를 했을까? 불자들은 탑이나 보리수 · 부처님 발자국 · 코끼리 등에 예를 올렸다. 코끼리나 사자가 동물의 제왕이듯이 부처님은 인천(人天)의 스승으로, 부처님을 코끼리나 사자에 비견하기도 한다. 코끼리는 부처님께서 코삼비 분쟁을 피해 잠시 홀로 숲속에 머물 때, 부처님을 시봉했던 동물이다. 또 〈법구경〉에는 코끼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게 하거나 비유로 들었다. 그만큼 코끼리는 불교에서 성스러운 이미지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민속적으로 호랑이를 동물의 제왕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어리석지 않은 지혜의 눈을 '호랑이 눈(虎眼)' 에 비유한다. 또 위대한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호랑이에 비유한다. 당대 큰 선사인 마조(馬祖, 709~788)를 '소처럼 걷고, 호랑이처럼 사람을 바라보았다(牛行虎視)' 고 묘사하고 있다. '호시(虎視)' 는 〈역경(易經)〉에 출처를 두는데, 진중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승려들의 신통방술적인 이미지나 걸출한 승려가 머물렀던 곳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이름의 샘(泉)이나 다리(橋)가 많다. 호랑이가 걸터앉은 형태를 말하기도 하고, 호랑이가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다는 두 가지 모두를 상징한다.

황벽 희운(?~856)은 강서성 의풍현 황벽사에서 선풍을 펼쳤다. 황벽사 도량에 고대로부터 승려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호포천(虎跑泉)이 있다. 현재도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우물의 물을 사용한다. 황벽이 저술한 〈전심법요〉는 조사선의 개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어록이며, 그의 뛰어난 풍모와 기개는 임제라는 걸출한 제자를 배출했다.

또 남악 회양(677~744)이 선풍을 펼친 호남성 남악 복엄사에도 호포천이라는 우물이 있다. 회양은 6조 혜능의 제자요, 마조의 스승이다.

셋째로 절강성 항주 서호 남쪽에 위치한 대자산 정혜사(定慧寺) 도량에도 호포천이 있다. 당나라 때, 성공(性空) 스님이 이 산에 왔다가 산에 물이 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신선이 나타나 '호랑이 두 마리가 우물을 만들어 줄 것' 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두 호랑이가 나타나 땅을 파서 샘을 만들어주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넷째로 강서성 여산 혜원(334~416)의 도량을 소개한다. 혜원은 만년에 동림사에 머물며 30년이 넘도록 산문 밖 출입을 금했다. 동림사 사천왕문 앞에 호계교(虎溪橋)가 있다. 어느 날 혜원에게 도교의 도사 육수정(406~477)과 유교의 도연명(365~427)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은 며칠간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두 명이 떠날 때, 혜원이 배웅했는데 산문 밖을 나가지 않기로 맹세한지 30년 만에 산문 밖 호계교를 건너버렸다. 깜짝 놀란 혜원과 함께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를 하여 '호계삼소' 고사가 생겼다. 당시 혜원은 이곳에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저술해 '출가자는 세속의 군주에게 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는 논리를 펼친 선지식이다.

앞에서 열거한 황벽 · 회양 · 성공 · 혜원 선사들은 출가자로서 기개가 충천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머물렀던 도량이기에 동물의 제왕인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다. 한달 전에 종교적인 편파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승려대회가 있었다. 올해 임인년에 이 땅의 모든 승려, 한국불교가 호랑이 같은 기개를 펼쳐 부상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社 說

불교 위상 팩트 체크서 출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은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소속 '건진법사' 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일광조계종은 불교와 무관한 '무속' 계열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선거판에서 '스님' '법사' 명칭이 부정적인 의미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불자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특히 일광조계종이 한국불교종정협의회와 함께 2018년경 '수륙대재' 라는 불교의례 명칭으로 살아있는 소를 제물로 사용하는 등 잔혹 행위를 한 사실이 사회적 뭇매를 맞으면서, 불교를 향한 인식왜곡을 우려하는 시각도 불거져 나온다. 선대위 측에서 건진법사를 무속이 아닌 한국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각 정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어지는 지지선언에서도 불교가 있다. 불교모임이나 단체 종단연합 형태로 발표된다는 점에서, '불교계 지지선언' 이지만 상당부분 그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억속에선 스님 또는 불교계의 정치행위로만 인식된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러고 보면 불교계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들도 불교위상을 흔드는 요인으로 안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스님들을 '정치승' '권승' 으로 비하하거나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예하를 '바지' 로 지칭하는 등의 행태는, 조계종의 실권이 마치 종무행정의 중심축인 총무원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런 비약과 조롱, 왜곡들이 조금씩 쌓이면 조계종, 나아가 불교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으로 잠재돼 종국에는 불교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 새 삶을 위한 나눔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2월 21일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서약자도 크게 감소함에 따라 홍보와 후원활동을 적극 펼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에서 2020년 47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누적 장기 기증자는 419명에 그쳐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2016년 2만 4611명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만 826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대기자 수가 2500명 이상 늘었다.

지난 2년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국가적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기증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국내 장기기증 문화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지금도 매일 5.9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기증 건수가 감소한다면 이식 가능한 장기가 줄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들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된 만큼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과의 이번 업무협약이 생명나눔을 위한 기부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운동도 습관이다

건강은 행복의 주된 요소이며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우리의 몸이 운동을 원하는 것은 석기시대 때 사냥을 위하여 넓은 들판을 누비던 유전자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노동의 자리에 운동이 대신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지요.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단 운전을 시켜 놓으면 어디까지나 무작정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몸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노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형성하는 장기(臟器)와 뼈, 근육들이 점차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운동은 자기 관리이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이나 지낸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지독한 천식을 앓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 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병약했던 루즈벨트는 아버지의 권고에


그림 · 최주현

따라 매일 체조를 했습니다. 운동이 힘들지라도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거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의 몸은 꾸준한 운동으로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는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 또한 지적이고 강인한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 몸이 건강해진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훗날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 씩이나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병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신이 초래한 경우도 많습니다.

스페인의 화가이자 도예가인 호안 미로는 운동하는 습관으로 자신의 우울증을 고쳤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던 호안 미로는 권투, 줄넘기, 체조 등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한 것은 물론이고, 창조적 에너지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운동하는 일상의 습관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릴 적 천식과 약한 몸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그는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밝은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엔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건강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은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도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면 삶이 즐겁고 매사가 그저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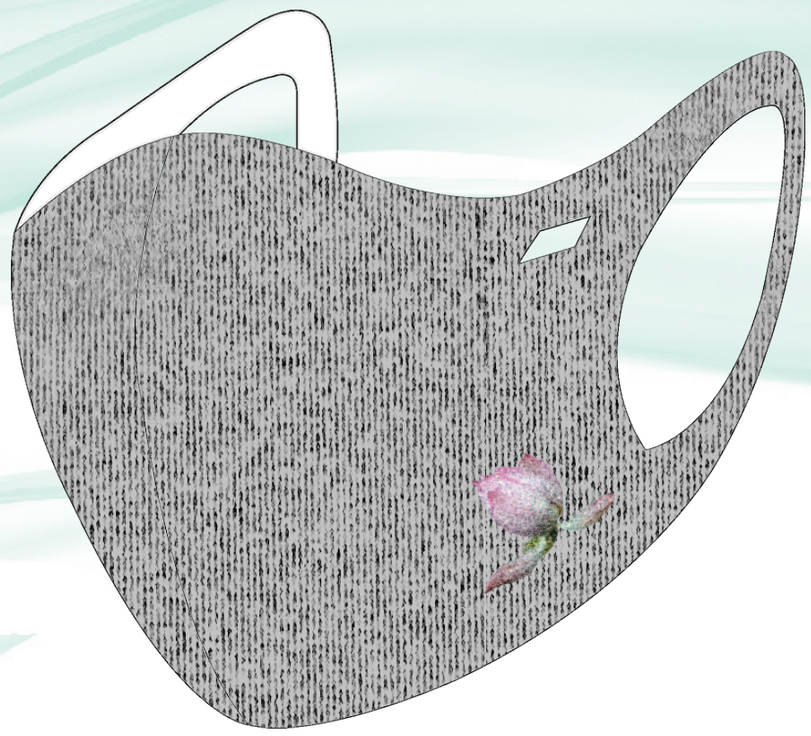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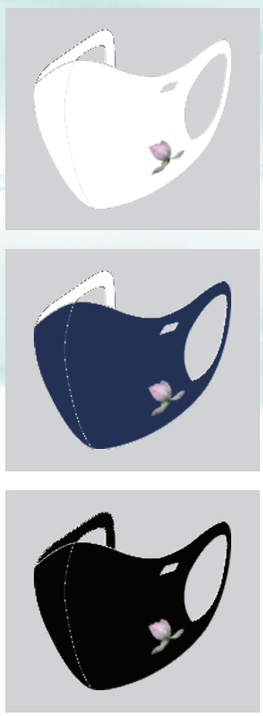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연꽃마스크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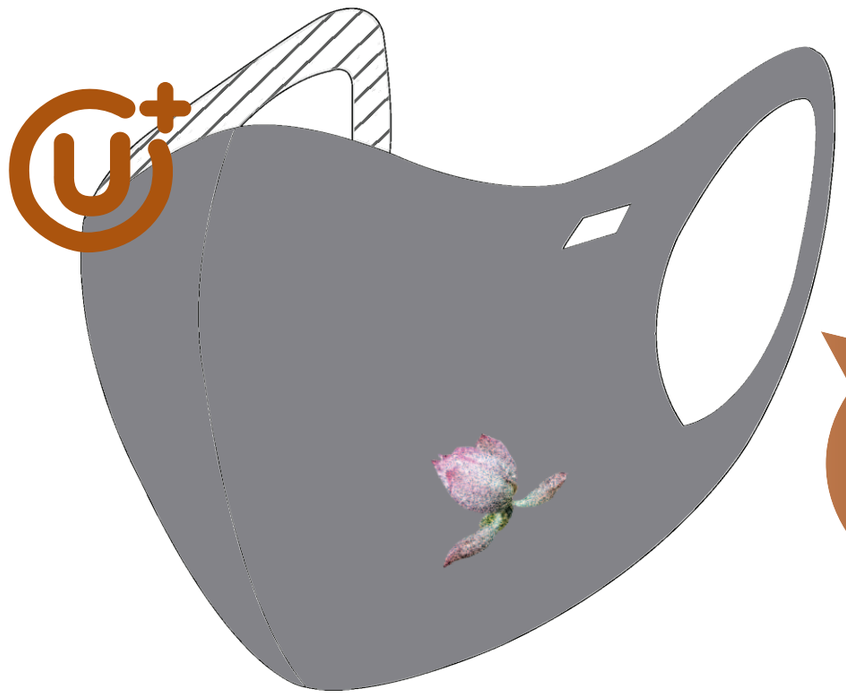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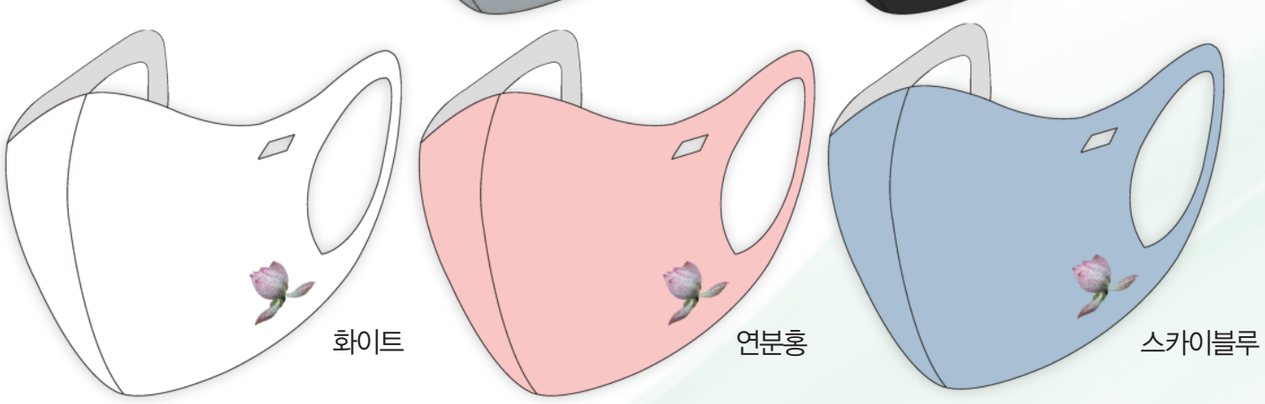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 (연꽃문양/5색)

2중 압축 NEW!!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는 이중압축으로 제작하여 기존 제품보다 발수기능이 우수한 **숨쉬기 편한 마스크** 입니다.



연회색 블랙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기존제품과 다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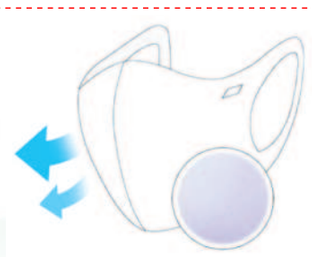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합니다.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아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연꽃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